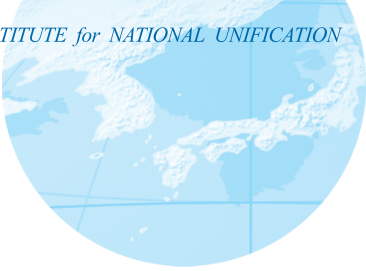




월간 북한동향

제6권 제3호 (2012년 5·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6권 제3호 (2012년 5·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5 May 2012

① 주차_5.01-5.06

1. 대내	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1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6

② 주차_5.07-5.13

1. 대내	1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25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30

③ 주차_5.14-5.20

1. 대내	3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39
3. 대남	43

④ 주차_5.21-5.27

1. 대내	4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5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57

⑤ 주차_5.28-5.31

1. 대내	60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64
3. 대남	65

인쇄: 2012년 7월 발행: 2012년 7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윤호희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6 June 2012

① 주차_6.01-6.03	1. 대내 68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71
	3. 대남 72
② 주차_6.04-6.10	1. 대내 74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8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85
③ 주차_6.11-6.17	1. 대내 90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95
	3. 대남 99
④ 주차_6.18-6.24	1. 대내 106 가. 정치 나. 사회·문화
	2. 대외 112
	3. 대남 115
⑤ 주차_6.25-6.30	1. 대내 118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123
	3. 대남 126
■ 5월 일지 / 130	
■ 6월 일지 / 132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5.01-5.06

5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김정은, 부친이 숙청했던 간부 6명 처분 취소(5/2, 마이니치신문)**
 -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단행했던 간부 6명에 대한 숙청을 취소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조선노동당 지도부에 가까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제1비서가 지난 2월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숙청된 인민보안부 간부 등 최소한 6명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전함.
 - 신문에 의하면 김 제1비서는 김 국방위원장 생존 당시 스파이죄로 고발돼 총살형이 확정된 공안기관인 인민보안부 제1부국장에 대해 숙청 이유가 합당치않다며 형을 파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킴.

- **김정은, 노동절 맞아 유리·기계공장 시찰(5/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절(5월1일)을 맞아 평안북도에 있는 대관유리공장과 기계공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대관유리공장을 찾은 김 1위원장은 공장에서 개발한 광학측정기재를 살펴보고 설계실, 자동화실, 전자도서실, 제품견본실 등을 돌아봤으며 기계공장에서 총조립직장과 제관직장 등을 돌아보고 노동자들의 문화오락시설인 ‘강성원’을 둘러본 뒤 강성원의 봉사자, 강성원을 건설한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음.

- **김정은, 노동절 경축 은하수음악회 관람(5/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인민극장에서 열린 5·1절 경축 은하수음악회 ‘장군님 식솔’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음악회 1부에서는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고 2부에서는 관람자들이 무대로 초청됐으며 김 1위원장의 공연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박도춘, 김기남,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당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등이 함께함.

● **김정은, 인민군 항공부대 지휘부 시찰(5/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통신은 김 1위원장이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데서 공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항공 및 반항공 무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데 지침이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함.
- 이날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박도춘 당비서, 손철주 군중장, 박재경 군 총정치국 선전선동담당 부국장, 리재일 당 선전부 1부부장, 김명국 총참모부 작전국장, 황병서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함.

● **최룡해, 軍건설현장 또 시찰(5/5, 조선중앙통신)**

-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4일 능라도호안공사 정형을 현지 요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북한 권부의 실세로 부상한 최룡해의 건설현장 시찰 공개는 지난달 24일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공사장 현지 요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임.

● **北 김정은, 연내 중국 방문 타진(5/6, 니혼게이자이신문)**

-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연내 중국 방문을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하순 중국을 방문했던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비서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제1비서의 방중 의향을 전달했다고 전했으며 후 주석도 김 제1비서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정치)**

- ‘5.1절’ 122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5.1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 개최(5.1, 중·평방·중통) · 최영림(보고)·김기남·양형섭·강석주·현상주·전룡남·이명길·로성실·동정호·이경식 등 참석
- 최고인민회의의 ‘정령 제2363호’(5.3), 만수대창작사(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에 ‘김정일훈장’ 수여(5.5, 중방)
- 최영림(총리), 5.3 단천마그네사공장·단천제련소 현지 요해(5.4, 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5.4 능라도 호안공사 및 평양민속공원 건설장 현지 요해(5.5, 중방)

- 최영림(내각 총리), 5.4 함흥시 경제사업 현지 요해(5.5,중통·중방)
- 최영림, 5.5 금야강군민발전소와 금야청년탄광사업 현지요해(5.6,중통)

나. 경제

● 1분기 북-중 교역 사상최대 또 경신(5/1, 미국의소리(VOA))

- 올해 1분기 북한과 중국간 교역액이 13억6천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1일 보도함.
- 이는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의 9억7천2백만 달러보다 40%나 늘어난 것이며 항목별로 보면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이 5억6천8백만 달러로 작년(4억2백만 달러)보다 40% 증가했고, 수입도 전년(5억7천1백만 달러)보다 40% 늘어난 8억 달러에 달하며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가 2억3천2백만 달러로 전년(1억7천만 달러)보다 6천2백만 달러 늘어남.
-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최대 수출품은 석탄으로 작년보다 106%나 증가한 3억1천8백만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의 56%를 차지 했고, 이어 철광석(4천9백만 달러), 비합금 선철(1천5백만 달러), 남성용 합성 섬유 재킷(1천2백50만 달러) 등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입품은 원유가 전체의 28%인 1억6천4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t 이상 화물차(3천1백만 달러), 콩기름(1천8백50만 달러), 섬유(1천2백만 달러), 밀가루(1천1백만 달러) 등 순이었음.

● 중국인 북한 관광 속속 재개(5/1,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동차, 철도, 전세기 등을 이용한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노동절(5월1일)을 전후로 속속 재개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중국 하얼빈(哈爾濱)시는 지난달 28일 하얼빈~평양 직항 전세기를 이용한 북한 관광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자체 인터넷을 통해 알리면서 같은 달 27일 전세기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힘.
- 좌석 수가 76석인 고려항공 소속 러시아제 TU134 소형 제트 여객기를 이용한 하얼빈~평양 관광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있으며 10월까지 총 47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관광코스에는 평양과 금강산, 남포, 개성, 묘향산, 판문점 등이 들어있음.

● 北 5월초 평양서 식량난 해결 ‘국토대회’(5/2, 좋은벗들)

- 북한 당국이 최근 심각해진 식량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월 초 평양에서 ‘국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새)좋은벗들이 2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53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성, 중앙기관은 물론 각 도·시·군당 일꾼, 국토환경부문 일꾼들에게 평양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해 대회 규모가 지난달 11일 열린 당대표자회에 버금갈 정도로 알려짐.
- 소식지는 이 대회에서 주로 농경지 부족 해소를 위한 산간지 및 유희지 개간과 식량 증산 방안, 농사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힘.

● 中훈춘-北나선 자가용 관광 인기 끌 듯(5/4, 연변일보)

- 4일 연변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올해 첫 자가용관광단 86명이 22대의 차량에 나눠타고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을 출발, 2박3일간 북한 나선 지역을 관광함.
- 지난해 출시된 이 관광상품은 훈춘시 권하통상구에서 도로로 북한 원정리를 거쳐 나선에 이르는 코스며, 관광객들은 나선부두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비파도, 망해각, 물개보호구, 빈해어구 등을 둘러보게 보고 김일성 주석 혁명사적지, 꽃온실 참관과 어린이 무용공연 관람 일정도 포함됨.

● 北단천항 준공...지하자원 수출용 항만(5/4, 노동신문)

- 북한은 3일 함경남도 단천에서 최영림 내각총리, 강종관 육해운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단천항 준공식을 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4일 전함.
- 북한은 단천항에 1만~3만t급 선박 3척을 동시 정박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을 건설하고 항만과 단천 마그네사이트공장, 단천제련소를 잇는 벨트 컨베이어로 물자를 운송하는 시스템을 갖춰 이 일대의 지하자원을 수출하는 데 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신문은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에 즈음해 단천지구에 현대적인 무역항이 일떠섰다”며 “수백만t의 화물통과능력을 가진 현대적인 무역항이 새로 건설됨으로써 나라의 대외무역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함.

다. 군사

● 北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 추진”(5/6, 연합뉴스)

- 북한은 6일 “우리는 자위적인 핵 억제력에 기초해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강성국가를 보란 듯이 건설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일 오스트리아에서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대북 공동성명에 대해 “미국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 세상에서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핵무기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라며 “이것(공동성명)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해 우리의 자주권과 평화적인 우주 및 핵 이용권리를 침해하는 엄중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함.

■ 기타 (대내 군사)

-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5.6)】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공동성명(핵활동 중단과 핵억제력 포기 요구) 전면 배격 및 ‘자위적 핵억제력에 기초한 평화적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5.6,중통)

라. 사회·문화

● 北 올해도 최악 언론 탄압국(5/2,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이 올해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일 전함.
-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1일 발표한 2012 국제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자유 상황이 전 세계 197개국 가운데 최악이라고 밝힘.

● 北, 평양에 새 무궤도전차 운행(5/3, 노동신문)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새로운 형의 무궤도전차를 생산해 운행한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전함.

- 노동신문은 “수령님(김일성)의 탄생 100돌을 맞은 수도의 거리에는 수많은 새 형의 ‘천리마’호 무궤도전차들이 달리고 있다”며 “평양 무궤도전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새 형의 무궤도전차들은 조립되는 족족 시험운행 단계를 거쳐 여객수송에 이용되고 있다. 올해 초에만도 여러 대의 새 무궤도전차가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힘.
 - 신문은 “지금 수도의 거의 모든 무궤도전차 노선에서 운행되는 새 형의 ‘천리마’호 무궤도전차들은 첨단기술에 기초한 자속절환형전동기와 조종체계가 도입된 현대적인 대중 여객 운수수단”이라며 “중전의 무궤도전차에 비해 전력을 40% 이상 절약하는 등 운영원가도 대폭 줄인다”고 소개함.
- **北 신생아 10명 중 1명은 조산아(5/4,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신생아 10명 중 1명은 정상적인 임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조산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WHO가 지난 2일 공개한 ‘세계 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북한에서 태어난 신생아 34만7천6백명 가운데 임신 37주 이전에 출생한 조산아가 3만7천3백명으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는데 이는 조사 대상 184개국 중 80번째로 높은 수치임.
- **제2회 평양 아마추어골프대회 20일 개최(5/4, 자유아시아방송(RFA))**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2회 평양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20일 개최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회도 주관하는 영국의 루핀여행사는 현재까지 15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며칠간 추가모집을 한다고 RFA에 전했으며 참가신청을 한 외국인은 뉴질랜드, 독일, 미국, 영국 등 7개국 출신으로 28세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알려짐.

2 대외

가. 일반

● 오바마 “北 ‘도발-보상’ 패턴 끝났다”(종합)(5/1,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30일 (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제규범과 원칙이 지켜지고, 지역안보를 위해 각국이 노력하고,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면서 “북한 도발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도발을 통해 관심을 끌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자신들의 좋은 행동을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식의 오래된 패턴은 무너졌음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고 취임 이후 계속 주장했다”면서 도발과 보상이 반복되는 대북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함.

● 北 최고회의 의장, 이란 핵개발지지(5/1, 교도통신)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은 30일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함.
- 통신은 북한 중앙통신을 인용, 최태복이 평양 주재 이란대사가 주최한 연회에 참석해 “이란에 대한 적대세력의 어떤 제재와 군사적 위협도 단호히 배격하고 핵의 평화 이용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란 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함.
- 연회는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로 열렸으며 이란 측도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북한 인민의 투쟁을 계속 지지한다”고 화답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美태평양사령부 “한반도 비상사태 대비”(5/1, 연합뉴스)**

- 미국 태평양군사령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은 추가적인 적대·도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함.
- 특히 사령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미래의 군사작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국의) 동맹으로서 모든 수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안보리, 대북제재 리스트 제출 시한 연장할 듯(종합)(5/1, 연합뉴스)**

- 유엔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제재를 확대하기로 한 의장성명이 채택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 리스트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중국이 리스트를 내지 않았다”면서 “안보리가 중국에 며칠 더 시간을 주기 위해 제출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유엔의 다른 관계자도 “북한 제재위원회가 중국이 제출할 북한 기업의 제재 명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2일 자정으로 끝나는 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 리스트 제출 마감 시한을 2~3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힘.

● **안보리, 北기업 3곳 추가 제재(종합2보)(5/2,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기업 3곳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부터 압록강개발은행 등 은행 1곳과 청송연합(생필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 등 무역회사 2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확정해 기존 제재 리스트에 추가함.
- 이로써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은 8개에서 11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제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북한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됨.

- **中, 유엔 北 추가제재로 3개 단체 자산동결 동의(5/2, 요미우리신문)**
 -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로 금융기관 등 3개 단체의 추가 자산동결에 동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근거해 북한 관련 금융기관과 무역회사 등 3개 단체를 새로운 자산동결 대상에 포함하는 추가 제재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고 전함.

- **클린턴, 中에 북핵 해결 협력 촉구(5/3, 연합뉴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3일 제4차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클린턴 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 모두 연설에서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를 외부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함.
 - 그는 “국력과 안보는 추가적인 도발이 아닌 자국민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데서 나온다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키는데 중국이 미국과 공동 노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함.

- **北김영남,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방문(5/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함.
 - 또한 통신은 김영남이 싱가포르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핵실험금지조약기구 “對北 24시간 감시 돌입”(5/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연성이 커지자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대북(對北)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토머스 뮌첼부르크 핵실험금지조약기구 부대변인은 “전 세계의 관측 시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하루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2006년과 2009년에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을 즉시 감지할 수 있다”고 RFA에 전함.
- 뮌첼부르크 부대변인은 전 세계 321개 관측소와 16개 실험실에서 지진파나 수증음파, 초저주파, 핵물질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핵실험과 관련한 북한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면 1시간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182개 회원국에 전달한다”며 “2009년 북한의 핵실험 때도 1시간30분 만에 모든 회원국에 전달됐다”고 말함.

● 中 “北 핵실험 가능성, 구체적 증거 없다”(5/3,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3일 베이징(北京)에서 회담을 하고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해가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소재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측 카운터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에 이은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음.
- 회담에서 중국 측은 핵실험을 포함해 여러 행태의 추가도발을 하지 않도록 북한을 제어하는데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3 대남

● 北조평통 “선군의 불맛 보여줄 것”(5/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역적배들이 대결과 전쟁이 정소원이라면 우리는 도발자들에게 선군의 불맛을 톡톡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평통 서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겨냥,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명박 역적패당은 우리가 특별행동조치를 선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함.

기타 (대남)

- ‘이○○역적패당이 특별행동조치 선포와 관련하여 동족대결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군대와 인민을 자극하고 모독하는 고의적 도발, 통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비난(5.2,평방·민주조선/불속에 날아드는 부나비들의 망동)
- 李대통령의 5월분 월급 전액 ‘통일항아리’ 기부(4.28,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통일재원’ 기금마련에 대해 ‘돈으로 저들의 체제통일 망상을 실현하려 한다’고 시비 비난(5.4,중통·노동신문·평방/수전노의 얼빠진 망상)
- 北 군대와 인민은 ‘보수언론사가 있는 중구와 종로구, 영등포구를 복수전의 첫 과녁으로 정하고 성전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식 타격으로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5.6,노동신문/철저히 결산해야 할 보수매문지들의 죄악)

5.07-5.13

5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김정은 담화 또 공개…두번째(5/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 1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에게 한 담화인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가 8일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전했으며 이를 ‘강령적 노작(勞作)’이라고 평가함.
- 김 1위원장은 담화에서 “이번 국토관리총동원열성자대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국토관리사상과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1위원장은 “해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산림·지하자원 보호기간으로, 3월부터 7월까지를 유용동물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나라의 자연보호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함.
- 북한은 이날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최영림 내각총리,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기남, 문경덕 당비서, 로두철 내각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를 열었음.

● 김정은, 만경대유희장 관리부실 공개질타(종합)(5/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의 놀이공원인 만경대유희장을 찾아 관리일꾼들에게 관리 잘못을 질타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9일 일제히 보도함.
- 김 1위원장은 2계단 유희장의 배그네(바이킹선) 앞 구내도로가 심하게 깨진 것을 보고 ‘한심하다’고 질책한 것을 시작으로 유희장 구내의 원림상태, 2중 회전관성열차(청룡열차), 유희기구의 도색상태, 물놀이장의 안전문제 등을 조목조목 질책하거나 지적했다고 북한매체들이 전함.

- 김1위원장은 특히 유희장 구내의 보도블록 사이로 잡풀이 돋아난 것을 보고 풀을 한포기 한포기 직접 뽑으며 “유희장이 이렇게 한심할 줄 생각도 못했다.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소리”라며 격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매체들은 전함.
 - 그는 “일꾼들이 유희장을 돌아보고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이 기회에 인민들에 대한 복무정신을 똑바로 간직하도록 경중을 울려야 하겠다”고 말했으며 “만경대유희장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업적을 빛내이는 책임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유희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변모시키도록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지시함.
 - 이날 만경대유희장 시찰에는 최룡해와 마원춘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수행함.
- **北 김정은 “인터넷으로 정보 수집하라”(5/10, 라디오프레스(RP);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터넷을 통해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10일 일본의 해외 정보 청취·분석 기관인 라디오프레스(RP)를 인용해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이 9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국토관리에 관한 회의 참가자를 상대로 한 담화에서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인 추세 자료들, 다른 나라의 선진적이고 발전된 과학기술 자료들을 많이 보게 하고 대표단을 다른 나라에 보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자료도 수집해오게 하여야 한다”고 지시함.
- **식량난 해결에 사활 건 김정은…‘돌격전’(5/1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식량 증산을 위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돌격전’이 시작됐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조선에서 벼 모내기가 시작됐다”며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포전(논)에서 첫 벼모를 냈다”고 전했다.
 - 이날은 60년 전인 1952년 김일성 주석이 이 농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씨앗을 뿌린 날이며,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명예농장원(농민)’으로 등록된 원화협동농장은 이 ‘기념일’에 맞춰 모내기를 시작했다.
 - 다음날인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

원래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자'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모든 일꾼과 농업근로자, 농촌지원자들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사회주의 대지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와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은, 만수대 건설 지원자들에 감사(5/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만수대지구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 감사를 받은 이들은 체육성 산하단위 부원 최효심, 대성지도국 부원 리철주, 중구역통계부 계산원 박정란, 광복지구상업중심 노동자 리봉숙, 인민대학습당 통계원 박경미 등임.

■ **김정은동향**

- 5/8, 김정은 제1위원장, 5.8 저작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4.27) 발표(5.8,중통)
 - △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 금수산태양궁전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지방특성에 맞게 △ 토지관리와 보호사업, 간석지개간, 토지정리사업에 큰 힘을 △ 나라의 전반적 도로망 합리적으로 완성, 도로의 현대화·중량화·고속화 실현 △ 수산자원 보호위한 사업,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 △ 다른 나라들, 국제기구들과의 과학기술교류사업 활발히 등 강조
 -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 5.8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5.8,중통·중·평양)
 - 최영림, 김정각, 김기남(김정은 제1위원장 저작 전달), 리명수, 문경덕, 로두철, 김인식(내각부총리 겸 수도건설위원회 위원장/보고) 등 참가
- 5/8, 김정은 제1위원장의 4.15연설을 각 단체에서 인용하는 사례는 '대외 및 대남자세가 최고영도자의 뜻과 의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조선의 진로(자주·선군·사회주의 길)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5.8,조선신보/새 바람이 분다, 제1위원장의 영도술-1)

■ **기타 (대내 정치)**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김일성 생일 100돌을 "지상최대의 명절로 경축했다"고 自祝하며 '중앙보고대회·열병식·축포야회 등 경축행사 진행 및 남포-평양 해수수송관 완공' 등 성과 강조 선전(5.7,중통)
 -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태양절이 안아온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했음.
- 최영림 총리, 5.10 양책베어링공장 현지 요해(5.10,중통·중방)
- 김정은 제1위원장의 만경대유회장 현지지도는 '넓은 사상관점·일본새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적 계기, 모든 일꾼들은 영도자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참된 총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5.12,중통·노동신문/사설, 일꾼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

나. 경제

● 北 올해 쌀 확보량 30만t 증가(5/9,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올해 쌀 확보량이 작년보다 30만t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함.
- FAO는 7일 발표한 '식량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200만t의 쌀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160만t과 수입 예정인 30만t, 그 외 외부원조 양을 합산한 수치로, 작년의 쌀 확보량 170만t보다 30만t 많은 양임.
- FAO 보고서는 2011년 추수철부터 2012년 여름까지 1년간 북한주민 1인당 쌀 소비량을 작년의 64kg보다 8.3kg 많은 72.3kg으로 추정함.

● 北, 4월부터 수산물 수출 금지(5/9, 좋은벗들)

- 북한이 지난 1월8일과 2월16일 당중앙 내부회의를 통해 4월부터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9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54호)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 금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일체 식량은 물론이고 수산물과 과일 등 식품 수출을 금지하고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라"고 지시해 당중앙 내부회의를 거쳐 4월부터 이뤄짐.

다. 군사

● 항공기·선박에 잇단 전파교란…'北특별행동?'(5/7, 연합뉴스; 평양방송; 노동신문)

- 북한이 '특별행동'을 예고한 지 2주가 지났지만 7일 현재까지 이렇다 할 북한의 무력도발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매체들도 '명령만 기다린다' '성전의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온다' 등과 같이 특별행동에 아직 돌입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연이어 내보내며 대남 위협만 계속하고 있음.
- 대외용 매체인 평양방송은 7일 '체제대결에 들뜬 정신병자의 궤변'이란

제목의 단평에서 “우리는 이미 역적패당을 깡그리 쓸어버리기 위한 특별 행동조치를 통고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실천행동뿐”이라고 강조함.

- 노동신문은 전날 “우리는 이미 보수언론을 포함한 쥐새끼무리들이 우리의 특별행동 대상으로 된다는 데 대해 통고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용매문가들이 등지를 틀고 있는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 영등포구를 비롯한 모략보도의 본거지들을 복수전의 첫 과녁으로 정하고 성전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함.

● 北 리영호, 군사대표단 이끌고 라오스 향발(5/8, 조선중앙통신)

- 리영호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군사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개성지역서 GPS 교란전파 계속돼(5/13,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28일 이후 현재까지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교란 전파를 남쪽으로 발사하고 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13일 밝힘.
- 이 소식통은 “북한 개성지역에서 GPS 교란전파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측의 군용장비나 민간 장비의 피해 사례는 없다”고 말함.
- 그는 “군의 전투기와 수송기, 정밀유도폭탄 등 핵심 장비는 미국 군전용 코드(P코드) 수신기를 달고 있어 북한의 GPS 교란전파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서 “민간 항공기나 선박 등도 관성항법장비(INS) 등 다른 항법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교란전파가 위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북한 개성지역서 발사되는 GPS 교란전파는 지상과 해상은 60여km, 공중은 200여km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 사회·문화

● 北 ‘4월 축제’에도 식량배급은 종전 수준(5/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식량배급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 태양절)의 축제기간인 4월에도 3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8일 보도함.

- WFP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4월에 주민 한 명당 배급한 식량은 하루 400g으로 3월의 395g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같은 식량 배급량은 WFP의 필수 권장량인 하루 600g의 66% 수준에 불과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지원 담당관은 “북한 당국이 분배한 식량은 쌀과 옥수수를 섞은 혼합식으로, 지역에 따라 쌀과 옥수수를 2대 8 또는 3대 7 비율로 섞은 것”이라고 RFA에 전함.

● 1분기 탈북자 입국 전년비 급감(5/8, 연합뉴스)

- 통일부가 8일 올해 1분기(1~3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366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6명)보다 200명이나 줄어든 수치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1분기 입국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119명, 여성은 247명으로 입국 탈북자의 67.5%가 여성으로 나타났고, 월별로는 1월 160명(남 61명, 여 99명), 2월 90명(남 26명, 여 64명), 3월 116명(남 32명, 여 8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난해 1분기 입국 탈북자 수는 1월 179명, 2월 152명, 3월 235명이었음.

● 北,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 첫 출전(5/9, 조선신보)

- 북한의 장애인들이 올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14회 하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한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9일 보도함.
- 북한이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조선신보는 “조선장애자체육협회가 올해 영국 런던에서 진행될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참가를 위한 준비를 다그친다”며 “그 일환으로 중국 장애자 체육인들과의 공동훈련을 진행한다”고 전함.
- 신문은 “3일 공동훈련에 참가하게 될 선수와 대표단 성원들이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조선의 장애자 선수들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장애인체육촌에서 탁구, 수영, 폴판보링, 육상 등의 종목별 훈련과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힘.

- **北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중국서 순회 공연(5/10, 길림신문)**
 - 북한의 5대 혁명가극 중 하나인 ‘꽃파는 처녀’가 이달 말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공연을 시작으로 베이징, 충칭(重慶) 등 중국 각지에서 순회 공연을 갖는다고 길림신문(吉林新聞)이 10일 보도함.
 - 첫 공연지인 창춘에서는 지린성 문화청의 특별요청에 따라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공연할 계획임.
 - 공연에는 북한의 3대 가극단 중 하나인 피바다가극단이 참여하며 북한의 공훈배우, 우수인민예술가, 최고예술상 수상 배우를 포함한 180여명이 무대에 오를 예정임.

- **北, 해외방송 차단 위해 하루 18시간 방해전파(5/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주민의 해외방송 청취를 막기 위해 하루 18시간까지 방해전파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의 북한 정보통신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인 마틴 윌리엄스씨를 인용해 11일 보도함.
 - 윌리엄스씨는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언론 조사연구업체 ‘인터미디어’의 ‘북한의 언론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발표회에서 자신이 매일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고 “북한 당국이 매일 최대 18시간 미국이나 한국 등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국제방송에 방해전파를 보내는 데 많은 전기와 자원을 낭비하는 사실은 이들 방송이 북한사회에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함.

- **北 “이상고온 지속, 평양 낮최고 27도”(5/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전반적 지방에서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4월30일부터 5월9일 사이에 낮 최고기온이 평양 27도, 평성 26.6도, 사리원 27.4도, 해주 26.7도, 개성 26.9도, 남포 22.2도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힘.
 - 통신은 “앞으로 5월 중순까지 주로 남부지방에 있는 고기압과 오호츠크해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된다”며 서해안 지방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가뭄을 예상함.

2 대외

가. 일반

- **‘통영의 딸’ 신숙자 사망…北 유엔에 통보(종합)(5/8, 연합뉴스)**
 - 북한이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70)씨가 1980년대부터 앓아오던 간염으로 사망한 사실을 유엔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대북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이런 내용을 담아 유엔에 보낸 A4 1장 분량의 답변서한을 공개함.
 - 북한 당국은 서한에서 “(신씨의 남편) 오길남 씨가 가족을 버렸고 또 두 딸의 어머니(신씨)를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신씨의 두 딸은 오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오씨를 만나는 것을 강력히 거부했으며 더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전함.

- **박의춘 외무상 이집트 도착(5/9, 평양방송)**
 -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블릭볼가담(비동맹)’국가 장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 8일 도착했다고 평양방송이 9일 전함.
 - 북한 대표단은 비동맹국가 장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5일 평양을 떠남.

- **北김영남, 인나·싱가포르 방문 위해 출발(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기 위해 10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이에 앞서 6일 “김영남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의 초청에 의해 곧 인도네시아공화국을 공식 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함.
 - 리광근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안정수 경공업성 등이 김영남을 수행했으며 비행장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허태권 경공업성 부상, 피트니 리안티 북한 주재 인도네시아대사관 공사참사,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 등이 김영남 일행을 전송함.

- **북-중 ‘만포-지안(集安) 국경다리’ 공동건설 조인(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만포-지안 국경다리의 공동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10일 평양에서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인식에서는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과 류홍차이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협정문에 서명함.

- **日 납북피해단체, 자국 경찰에 北 고관 고발(5/10, 교도통신)**
 - 일본인 납북문제 관련 단체가 북한 공작기관의 고위 관계자를 일본 경찰에 고발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함.
 - 납치 피해자가족 지원단체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하는 모임) 회원들은 이날 일본인 납치를 지시한 혐의(국외이송 목적 약취)로 강해룡 북한 대외정보조사부 전 부부장 등 2명을 경시청公安부에 고발함.
 - 이 단체 가나가와 지부 대표로 고발인 중 한 명인 가와조에 도모유키(川添友幸)는 “(일본) 당국이 지난해 9월 (강 전 부부장을) 수배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며 “납치의 전모를 밝히려고 고발했다”고 말함.

- **北박의춘 외무상 “이중기준 합리화에 유엔 도용”(5/10, 조선중앙통신)**
 - 비동맹국가 장관회의에 참가한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극소수 국가의 강권과 이중기준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유엔이 도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박 외무상은 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비동맹국가 장관회의에서 “조선의 위성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우주조약을 비롯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따르는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리행사”라며 “이번 사태는 유엔안보리가 국제법 위에 군림하는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中 원자바오, 한반도 긴장완화 촉구(5/13, 신화통신)**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관련된 각국의 지혜와 인내, 선의를 촉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보도

- 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소재 인민대회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제5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 원 총리는 3국 지도자들이 동북아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해당 각국의 이해와 관련돼 있고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으로 가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
- 원 총리는 이어 한국, 중국, 일본이 동북아에서 냉전의 사고방식을 걷어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관련 이슈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김영남, 印尼 친선방문 시작(5/13, 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3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4일간의 친선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투쿠 파이자샤 대통령 외교관계 특별보좌관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김 위원장의 방문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친선방문”이라며 “유도요노 대통령이 15일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는 또 양국이 1961년 수교 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이 양국 간 우의를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두 지도자가 지역의 지정학적 문제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기간에 부디오노 부통령과 인도네시아 국회의장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일본의 ‘동해→일본해’ 단독표기기도(4.23~27, 국제수로기구총회에서 무산)는 ‘△역사왜곡행위, △군국주의적 재침야망, △독도강탈 흉심’이라고 비난 경종(5.7, 중통/극악한 재침 야망의 발로)
- 미국의 방북 自國 언론들의 ‘북 장거리로켓 발사 보도 제한처사’ 비난 및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서의 ‘평정전략의 진퇴양난’ 조소(5.7, 중방/미국식 언론자유의 진면목·평정전략을 통해본 미국의 가공한 처지)
- 미국은 ‘북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식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핵문제 등 미국의 이중기준 반대투쟁’ 선동(5.10, 중통·노동신문/이중기준 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
- 北 박익춘(외무상) 대표단 단장, 5.9 뽐력불가담(비동맹) 장관회의(이집트)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 장거리로켓 발사’ 비난 의장성명 채택 관련 “유엔은 극소수의 강권과 이중기준 행위를 합리화 하는 데 도용되고 있다”고 주장(5.11, 중통·중방)

- 北(리영호 총참모장) - 라오스(국방성 부상) 군사대표단 회담, 5.9 진행 및 리영호 단장의 라오스 수상 의례방문 등 동정 보도(5.10,중통·중방)
 - 라오스 국방성, 5.9 연회 개최 및 라오스 국방상의 김정은 선물 리영호에게 전달 (5.10,중통·중방)
- 김영남, 5.11 대통령궁전에서 싱가포르대통령과 회담 진행(5.12,중통·중방)
- 미국의 한미일 3각군사동맹 등 “군사기지화 정책의 초점이 아시아로 돌려지고 있다”며, 이는 ‘세계제패야망 실현, 北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5.13,중통·노동신문/미국의 아시아 포위망형성 책동의 위험성)

나. 6자회담(북핵)

- 北조평통 “어떤 대가 치르더라도 핵억제력 강화”(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0일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 억제력을 비롯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괴뢰패당과 미국 것들이 그 무슨 비용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걸고드는 것은 우리의 선군위력에 질겁한 자들의 최후발악적 망동이며 우리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 가소로운 수작”이라며 이같이 말함.
 - 대변인은 “적대세력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 마치 그 어떤 혜택이 차례질 것처럼 떠든다. 심지어는 위성을 남이 대신 쏘아주려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리도 한다”며 “우리 인민은 억만금의 돈이나 그보다 더 큰 무엇과도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바꾸는 인민이 아니다”고 강조함.
- 美의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종합)(5/12, 연합뉴스)
 - 미국 의회가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한국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 11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확대하고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음.

● 軍 “전술핵 재배치 주장 북핵 해결에 부정적”(5/13, 연합뉴스)

- 군당국은 미국 의회가 한국 내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군의 한 소식통은 13일 “미국은 1991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고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이 정책을 뒤집으려면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소식통은 “전술핵의 재배치는 1992년 2월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포기할 뿐 아니라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으로는 (재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

3 대남

● 北 ‘현대家’ 정몽준 이례적 맹비난(5/10,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0일 ‘대통령병에 환장이 된 친미주구 정몽준의 가소로운 낫두리’란 제목의 논평에서 ‘정치간상배’ ‘시정잡배’라는 막말까지 동원해 정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을 쏟음.
- 우리민족끼리는 “정몽준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벌여놓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는 망방을 꾀쳐댔다”며 “이자는 ‘북의 새로운 무력도발 가능성’이니 ‘시대착오적인 북의 세습체제’니 ‘북지도부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고민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걸고 악담을 불어댔다”고 공격함.
- 이 매체는 “정몽준이 이런 극악한 대결악담을 꾀쳐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며 “지난 기간에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떠들며 보수패당의 대북정책을 적극 비호두둔하였고 그 대가로 이명박역도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한나라당 대표노릇까지 했다”고 주장함.

기타 (대남)

-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방미(북 장거리로켓 발사 관련 대책협의 등) 및 ‘한미통합국방협약체’ 개최 등 韓美 ‘대북정책공조’ 대해 “그들의 위기의식과 동족대결광증”이라고 비난(5.7,중통·노동신문·평방/선군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다)
- 우리 정부의 ‘北, 핵공격 판단 땀 선제타격’ 작전계획 수립 관련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전면전쟁을 노린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선제공격은 결코 韓美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위협(5.8,중통·노동신문·평방/자멸을 재촉하는 선제타격홍계)
- 北 『조평통』 대변인 5.10 韓美 정부 등 ‘북 장거리로켓 발사 비용문제 등 지적에 대해 우리(北)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모독,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 및 ‘핵억제력 강화’ 역설 중통기자 대담(5.10,중통)
-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억제력을 비롯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철저히 지켜나갈 것임.
- 李대통령의 어린이날 행사 발언(北은 말 잘 듣는 나쁜 어린이 등)을 ‘反北광대극’으로 재차 비난(5.10,중통·노동신문·평방/동심에 적의를 불어넣는 대결미치광이)
- 韓美 맥스·샌더훈련(5.7~18) 관련 ‘북침선제공격을 노린 도발행위, 원수들의 아성을 초토화해 버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5.12,중통·노동신문/전쟁부나비들의 어리석은 놀음)
- 우리 정부의 ‘선제타격작전계획’ 공개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속 비난(5.13,중통·민주조선/위험천만한 북침전쟁 각본)

5.14-5.20

5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일성·김정일주의가 北 새 지도사상(5/16, 신화통신;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노동당의 새 지도사상으로 정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인용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달 6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는 제목의 담화에서 노동당 지도사상을 기존 김일성 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 주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기존의 김일성 주의 혁명사상을 발전시키고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었으나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명칭으로 지도사상 변경을 거부해왔다고 소개하고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으며 아울러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김일성 주의 혁명사상을 계승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혁명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함.

- 김정은 ‘국토관리’ 노작 이후 北전역 공사장(5/20,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노동당, 경제기관, 근로단체 간부들과 담화를 하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을 힘있게 벌이라”고 지시했다고 20일에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이날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최영립 내각총리,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기남, 문경덕 노동당 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를 열었음.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평양시에서는 요즘 도로주변과 녹지에 잔디와 여러 종류의 지피식물을 심고 가꾸는 데 힘을 넣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으며 17일에는 “평양시를 원림녹화가 잘된 공원 속의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한 시민의 열의가 대단히 높다”며 “시 중심부에 멎있는 주택구획이 생겨나고 녹지 조성과 나무심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함.

● **김정은, 인민군 연합부대 공연 관람(5/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639대연합부대와 53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김 1위원장은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해당 부대들의 정치부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며 “(인민군) 예술선전대는 축전에 참가해 평가를 받는 것보다 군인들을 교양하는 데서 긍지와 보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함.

■ **김정은동향**

- 5/20,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제639·53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5.20, 중통·중·평방)
 - 최룡해·장성택·현철해·김경옥·황병서·권혁봉·손철주·박재경·조경철등동행 관람
- 5/20 김정은, 만수대지구 건설 지원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20,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내각총리, 5.15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요해(5.15, 중통)
- 최룡해 총정치국장, 5.15 평양민속공원 건설정형 현지요해(5.15,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5.17 평안북도 창성군 사업(창성식료공장, 식주직물공장 등) 현지요해(5.18, 중통)
- 최영림, 5.18 룡라인민유원지 개발사업도 현지요해(5.18, 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이탈리아 주재 北 대사로 '김춘국' 임명(5.18,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5.20 평양남새과학연구소·평양화초연구소 온실건설실태 및 평양민속공원 현지 요해(5.20, 중통)

나. 경제

● **北나진항, 중국산 석탄운송 전용항만?(5/16,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들어 4월까지 중국 지린성 훈춘 일대에서 생산돼 북한 나진항을 통해 중국 남동부로 운송된 석탄의 양이 10만 여t으로 지난해 전체 반출량 10만t을 이미 넘어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훈춘시는 최근 자체 인터넷에 올린 정무공표 자료에서 나진항을 통한 훈춘산 석탄의 운송을 ‘차항출해(借港出海. 항구를 빌려 바다로 나간다)’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공개했다고 방송은 전함.
- 훈춘시는 나진항을 통해 훈춘산 석탄을 상하이, 닝보 등 중국 남동부 지

역으로 해상운송하는 방식이 이미 일반화했다고 밝혀 지난해 나진항을 이용해 시험적으로 시작한 석탄 남방운송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함.

● 1~4월 남북교역액 전년比 18% 증가(5/16, 연합뉴스)

- 남북관계 경색에도 올해 1~4월 남북교역 총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연합뉴스가 전함.
-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남북교역 총액은 6억277만2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1천144만7천 달러에 비해 17.9%인 9천132만5천 달러 증가함.
- 이 기간 북한으로 반출한 금액은 1만3천895건, 2억6천881만8천 달러이며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금액은 1만1천432건, 3억3천395만4천 달러인데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이 모두 중단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교역액은 대부분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액인 것으로 보임.
- 4월까지 남북교역을 품목별로 보면 반출 품목은 주로 의류 생산용 원부자재와 생산설비 등이며 반입 품목은 여성의류 등 가공된 완제품임.

● 北, 금지 사치품 수입 계속(5/16, 연합뉴스)

- 북한은 유엔이 정한 금지 사치품을 중국의 중개상을 통해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북한 제재를 위한 유엔 소위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밝혔다고 16일에 연합뉴스가 전함.
- 유엔 소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수입되는 금지 사치품의 상당 부분이 일본산인데 중국 다롄(大連)의 무역회사 DGUSA가 주요 중개 통로가 되고 있으며 북한으로 수입된 일본산 금지 사치품들은 1만 개비의 담배와 12병의 정종, 20만엔 상당의 화장품, 수백대의 노트북 컴퓨터 등이며 중고 벤츠 3대도 중국의 중개상을 통하지 않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소식통은 전함.
- 이들 제품의 거래를 맡은 북한측은 능라도무역, 신평무역, 상명2 등이며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일본의 소기업과 재일 북한 교포 등은 돈세탁에 관련됐다고 소식통은 밝힘.

기타 (대내 경제)

- 北합영투자위 과장 김일순, 5.14 평양고려호텔에서 외국 투자설명회를 통해 '법률적 토대와 경제적 환경(자원, 인력, 각종 세금과 세율 등)' 등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5.17,중통·노동신문/성공적인 투자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다)

다. 군사

● 北, 무수단리 발사장 개선 공사 진행(5/16, 교도통신)

-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에서 개선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16일(현지 시간) 보도함.
- 한 외교 소식통은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이뤄지는 공사가 아직은 초기 단계에서 어떤 공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설치 공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中 장백현 출발 北변경관광 3년 만에 재개(5/14, 길림신문)

- 중국-북한 접경인 지린(吉林)성 장백(長白)조선족자치현을 출발해 북한 양강도 혜산시 일대를 둘러보는 변경관광이 이달 초 재개됐다고 길림신문이 14일 보도함.
- 장백현을 출발하는 북한 변경관광은 1~3일짜리 상품이 있으며 비용은 1인당 630 위안(약 11만5천 원)~1천280 위안(약 23만3천 원)이며 주요 관광코스는 혜산시 보천보전투 유적지, 삼지연 풍경구, 백두산 밀영, 김정숙사범대학, 백두산 천지, 혜산시 소년궁 등임.

● 상하이~평양 전세기 7월부터 운항(5/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하얼빈~평양 노선에 이어 상하이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전세기가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이 15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관광총국 문대길 부총국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인의 북한 관광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난징 등 중국 동부 주요 도시를 순방하면서 상하이~평양 직항 전세기 투입과 여행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고 중국 민항망이 전함.
- 문 부총국장은 여행 성수기인 7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매주 화요일, 금요일 두 차례 중국인 여행객을 위한 전세기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하얼빈~평양 직항 전세기는 4월27일부터 주 2회 운영에 들어감.

● **北 올해 아리랑공연 8월1일 개막(5/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대집단체조 ‘아리랑공연’이 올해는 8월1일 개막해 5주간 열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내 북한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를 인용해 15일 보도함.
- 고려여행사는 14일 온라인 소식지를 통해 “북한 당국이 올해 아리랑공연 일정을 8월1일부터 9월9일까지로 공식 확정(officially confirmed)했다”고 밝히고 공연은 90분간 진행되고 매주 5차례 열린다고 전함.

● **국제적십자, 북한에 270만 그루 묘목 심어(5/16,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IFRC)가 지난 3월부터 두달 동안 북한 평안남북도 등 30여 곳의 산간 지역에 270만여 그루의 묘목을 심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북한 내 홍수 취약지역에 심은 나무의 수종은 아카시, 잣나무, 소나무, 미루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등으로, 2만여 명의 북한 농민, 자원봉사자들이 묘목 심기에 동원됨.
- IFRC 베이징사무소는 북한 국가과학원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올해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데 산간과 나무를 이용하는 ‘산림 농업’에 대한 특별연수를 관련자들에게 제공함.

● **북한 기대수명 70세, 세계 107위(5/16, 미국의소리(VOA))**

- 세계보건기구(WHO)가 16일 발표한 ‘2012 세계보건통계’에서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을 평균 70세로 추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전함.

- 이 같은 기대수명은 세계 194개국 중 107번째에 해당하며 성별로는 북한 여성이 평균 72세로 115위, 남성은 67세로 104위였음.
- WHO는 2010년 현재 북한의 총인구를 2천434만6천 명으로, 중간나이를 33세로 추정했으며 북한 인구 중 15세 미만 어린이는 23%, 60세 이상 노인은 14%로 추산함.

● **北 런던올림픽에 11개 종목 출전(5/17, 조선신보)**

- 북한이 올여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0차 하계올림픽에서 11개 종목에 출전하게 됐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7일 전함.
-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종목은 여자축구, 탁구(단체, 남녀), 유도(여), 레슬링(남녀), 권투(남), 활쏘기(여), 사격(여), 마라톤(남녀), 수중체조무용(여자 2인조), 다이빙(남녀) 등이며 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 중에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은 안금애(여자 유도 52kg 급) 선수, 김금옥(마라톤) 선수 등이 포함됨.

● **中엔지-北금강산 직항 관광코스 내달 개통(5/18, 연변일보)**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엔지(延吉)에서 북한 금강산을 오가는 직항 관광코스가 다음 달 개통될 예정이라고 연변일보가 18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 금강산 관광 총대리권을 가진 연변천우국제여행사는 다음 달 중순 엔지-금강산 관광을 시작할 계획임.
- 관광단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엔지를 출발하며 3박4일과 4박5일짜리 2개 코스가 있음.
- 관광비는 4박5일 기준으로 1인당 4천500 위안(83만4천 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문은 지난 4월 14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었다가 일정이 미뤄진 금강산 유람선 관광도 이번 직항 코스와 함께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伊스포츠용품사, 런던올림픽 北선수단 후원(5/18,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여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0차 하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이탈리아 스포츠용품사의 후원을 받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전함.

-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북한 축구팀을 후원한 이탈리아 스포츠용품 회사 LEGEA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북한 선수단을 후원하며 이에 따라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전원은 LEGEA 상표가 찍힌 운동복을 입게 됐다.
- **北인구 26%만 가정서 전력 혜택(5/18, 미국의소리(VOA))**
 - 북한 전체 인구 중 26%만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를 인용해 18일 전함.
 - UNDP의 ‘2012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북한의 전력사정은 20개 아시아 국가 중 5번째로 열악한 수준이며 북한의 1인당 전력 사용량도 1990년 이래 감소해 1990년 북한 주민 1명이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력량은 1천246kWh였지만 2000년에는 713kWh로 급감했고 2008년에도 809kWh에 불과함.
- **日 학자 ‘백두산 20년 내 분화 확률 99%’(5/19, 교도통신)**
 -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백두산이 20년 안에 분화할 확률이 99%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함.
 - 다니구치 히로미쓰(谷口宏充) 도호쿠대 명예교수(화산학)는 최근 백두산이 동일본대지진(규모 9.0) 판(플레이트) 운동의 영향으로 분화할 확률이 2019년까지 68%, 2032년까지 99%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음.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15차 평양불철국제상품전람회(5.14~17), 5.14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5.14, 중흥·중방)
 - 강석주(내각부총리), 리룡남(무역상), 오룡철(무역성 부상), 김성덕(평양시 인민위 부위원장), 김문정(北 국제전람회 사장/개막연설), 여러 나라 지역 대표단들 등 참가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산림법’ 일부내용 수정보충(5.17, 중통)
 -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하기 위한 사업이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현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1조 수정 보충

2 대외

- 원자바오 “북한에 주민생활 우선 설득 중”(5/14, 요미우리신문)
 -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주민의 생활을 우선해야 한다고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온라인판이 보도함.
 - 신문은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를 인용, 원 총리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게 북한 새 지도자 김정은 제1비서의 체제가 출범한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이 ‘올바른 판단’하도록 유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함.

- 北 김영남, 印尼 영웅묘지 헌화(5/14, 연합뉴스)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친선방문 이틀째인 14일 자카르타 국립 영웅묘지를 방문해 헌화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김 위원장이 13~16일 유도요노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친선방문한다며 리광근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안정수 경공업상 등이 수행한다고 전함.

- 北 송일호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했다”(5/15, 도쿄신문)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일본인 납치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15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송 대사는 지난달 16일 북한을 방문한 ‘북한 여성과 연대하는 일본 부인연락회’의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 대표(전 참의원 의원)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이미 실시해 약속을 이행했지만 일본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말함.

- 北 김정은, 유도요노 印尼 대통령 초청(종합)(5/15,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1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마르티 나탈레가와 외무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유도요노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간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초청장을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함.
- 나탈레가와 장관은 두 정상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의 오랜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 상호 문제와 함께 지역적, 세계적 문제들도 논의했다고 말했으며 김 위원장이 지난달 시도한 위성발사 등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남북 관계, 통일문제 등을 설명하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이에 남북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함.

● 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연장안 가결(1보)(5/16,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함.

● 北 軍추정 선박, 中어선 나포(종합)(5/17, 연합뉴스)

- 북한에 억류 중인 중국 어선 3척은 군 소속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나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17일 신정보(新京報)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 가운데 한 척인 랴오단(遼丹) 23528호와 함께 작업하다 도주한 랴오단 23527호 선장 장중궈(姜中國)는 소형 북한 군 선박이 랴오단 23528호에 빠르게 다가가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당시 북한 선박에는 푸른색 제복을 입은 사람 4~5명이 타고 있었음.
- 다른 나포 어선인 랴오단 23979호도 공용 통신망을 통해 “북한군 배에 잡혔다”고 말했다고 주변 해역의 중국 선장들은 증언했으며 억류 어민들은 중국의 선주와 통화를 할 때 제복을 입은 총을 지닌 사람들과 사복 차림의 사람이 섞여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중국어를 하는 사람도 섞여 있다고 전함.
- 랴오닝성公安변방총대는 “현재 (북한과)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며 자세한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음.

● 北·日, 中서 ‘일본인 유골 반환’ 논의(5/17, 산케이신문)

- 북한과 일본이 평양에서 발견된 일본인 유골을 반환하는 문제를 논의한다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17일 보도함.

- 민주당의 나카이 히로시(中井浩) 중의원 예산위원장과 가까운 관계자가 이날 중국 동북부를 방문해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와 만날 예정임.
- **유엔, 北-시리아·미얀마 무기거래의혹 조사(5/1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對)북한 제재위원회가 북한과 시리아 및 미얀마 간 무기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함.
 - 이같은 사실은 로이터가 17일(현지시간) 단독 입수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드러났으며 전문가 패널은 이번 주초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지적함.
- **日, 北에 일본인 납치문제 실무협의 요청(5/19, 교도통신)**
 - 일본 정부관계자가 북측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즉답을 받지 못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복수의 북일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과 가까운 한 정부관계자는 15~17일 방북한 도쿄도 시부야구 지방의원을 통해 조선대외문화연합회 황호남 국장에게 실무협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함.
- **G8정상 “北, 도발 계속시 더심한 고립 직면”(5/19, 연합뉴스)**
 - 미국을 비롯한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걸을 경우 더 심한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연합뉴스가 전함.
 - G8 정상들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시작된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미 당국자가 전함.
- **북한, 나포 中어선·어민 전원 석방(5/2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지난 8일 나포한 중국 어선 3척과 어민 29명 모두를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장야셴 참사는 이날 신화통신에 북한 외무성이 이 같은 내용을 중국대사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 풀려난 중국 어선과 어민들은 귀로에 올랐다고 장 참사는 말했으며, 류홍차이(劉洪才) 대사를 비롯한 평양의 중국대사관원들은 북한을 상대로 한 교섭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중국 어선과 어민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5.14 인도네시아 '민족영웅묘에 화환' 진정 및 '민족기념비' 참관(5.14,중통·중방)
-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5.15), 일본의 '미국인 北 납치설'(데이비드 스넨던/ 2004년 중국에서 실종) 주장은 '완전 거짓, 터무니없는 또 하나의 모략책동'이라고 비난(5.15,중통)

3 대남

● 北 ‘광우병 촛불’ 다시 지피려 안간힘(5/14,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누구를 위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인가’란 제목의 글을 실고 “남조선에서 미친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반정부 투쟁으로 타 번지는 것은 응당하다”고 밝힘.
-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패당의 용납 못할 역적행위로 하여 남조선에는 지금도 미친소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고기가 아무런 제한 받음이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됐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北, GPS 전파교란 북한 소행설은 모략·날조(5/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14일까지 16일간 우리측 영공과 해상에서 감지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전파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며 우리 정부의 ‘모략·날조극’이라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함.
- 북한 체신성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이명박 쥐XX패당이 동족대결의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최근에는 제놈들이 당한 전파교란 피해를 놓고 또다시 우리를 걸고 드는 새로운 모략극, 날조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역적패당은 (교란전파가) 개성에서 내려오는 교란신호가 분명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최근에 반입한 차량형 GPS 장애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느니, 요즘에는 이명박 역도의 위촉을 받은 중국의 작용으로 드디어 우리가 전파교란을 중지했다느니 하면서 안팎으로 날조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함.

기타 (대남)

- ‘北 인권문제’ 관련 ‘공화국의 권위를 허물어 보려고 날뛰는 것, 특별행동 통고에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저승길을 재촉하는 자살행위’라고 재차 위협(5.14,평방/피를 말려 죽일 것이다)
- 李 대통령의 해외언론과의 서면인터뷰시 對北발언(자유와 인권, 경제상황, 독재정권, 폐쇄국가 등) 관련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고 황당무계한 날조로 일관된 악담질을 했다’며 ‘보복성전의 불벼락’ 등 재차 위협(5.17,우리민족끼리/대결쓸라닥질과 악담질은 청와대취박이의 본성/해외에 나가서도 대결쓸라닥질, 민화협 강금철 투고)

-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 통일항아리, 통일비용' 등 거론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에 관심이 나 있는 듯이 노숙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 및 현남북관계 책임전가(5.19,평방/북남관계를 결단년자들의 노숙)
- 조총련, 5.19 총련 중앙위 제22기 제3차 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허종만' 책임부의를 '의장'으로 선출(5.19,조선신보)
- 美 광우병을 발생 관련 '北, 反정부 촛불시위선동 개시' 등의 기사를 쓴 언론매체(연합뉴스, 동아문화일보 등)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대결과 왜곡으로 일관하는 보수언론은 쥐무리패당의 대결용 도구일 뿐이다'고 비난(5.20,우리민족끼리/쥐무리패당의 대결용 도구)

5.21-5.27

5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매체에 일제히 등장하는 ‘김정일애국주의’(5/22, 연합뉴스; 노동신문)
 - 5월 들어 북한 매체들의 보도에 ‘김정일애국주의’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오늘 우리 당원,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기 일터, 자기 고향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21일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 인민을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혁명적 진군을 충정의 진군, 애국의 총진군으로 수놓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을 실현해나가려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고 밝힘.

- 北김정은 잡초 뽑은 놀이공원 찾은 최룡해(5/23, 조선중앙통신)
 -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2일 평양 만경대유희장 리모텔링 현장을 시찰했다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22일 “총정치국장은 공사 중에 있는 유희장과 물놀이장을 돌아보면서 개건(리모텔링) 정형에 대해 요해하고 군인 건설자들의 노력적 성과를 고무했다”며 “최고사령관(김정은)의 숭고한 인민관을 심장에 새기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됐다”고 보도함.

- 北김정은 군부대 시찰…“자랑할만하다” 치하(5/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1501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김 1위원장은 군부대에 꾸려진 혁명사적교양실과 현지지도표식비, 군인회관 등을 둘러보고 군부대에서 자체로 제작한 전투기술기재를 살펴본 뒤 “군부대에서 최고사령관이 오기를 기다렸다는데 부대를 돌아보니 정말 자랑할만하다”고 지휘관들을 치하했으며 군부대 시찰을 마치고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음.

- 김 1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주구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경옥 당 조직부 1부부장, 황병서 당 조직부 부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이 수행함.

● **‘장군님과 찰카’ 약속 대신 지킨 김정은(종합)(5/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 장병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함.
-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이뤄진 기념촬영에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옥 당 조직부 1부부장, 황병서 당 조직부 부부장, 조정철 인민군 보위사령관 등이 함께함.
- 조선중앙통신은 “그날(지난해 2월 초) 임무수행으로 영광의 자리에 참가하지 못한 일꾼(간부)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김정일)께서는 훗날 그들과도 기념사진을 찍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셨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 남기신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군부대 일꾼과 직속 구분대 군인들을 모두 부르시어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셨다고 밝힘.
- 이날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은 김 위원장의 약속을 대신 지킨 김 1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통신은 전했다며 기념촬영이 끝난 뒤에도 ‘김정은 결사옹위’라는 구호를 외침.

● **김정은, 평양시내 동물원 현지도(5/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중앙동물원을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했다.
- 김 1위원장은 이날 현지도에서 남포~평양 바닷물 수송관이 완공돼 중앙동물원 수족관에 바닷물을 공급함으로써 바닷물고기 기르기가 편해졌다는 간부들을 보고를 받고 만족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김 1위원장의 동물원 시찰에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김양건 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 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부 1부부장, 황병서, 박춘홍, 마원춘 당 부부장, 전일춘 당 39호실 실장 등이 수행했음.

● 北총리, 황해남도 농촌 방문…가뭄극복 독려(5/27, 조선중앙통신)

- 최영림 북한 내각총리가 26일 황해남도 신천군 새날농장과 안악군 오국농장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요해(了解.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통신은 이들 농장이 불리한 날씨가 이어지는 조건에서도 모내기를 다그치고 있으며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 김정은동향

- 5/24, 김정은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 시찰(5.24,중통·중방)
 - 최룡해, 장성택, 주규창, 김경옥, 황병서, 김영철 동행
- 5/24, 김정은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제6556군부대 장병들과 기념사진 촬영(5.24,중통·중방)
 - 최룡해, 장성택, 김경옥, 황병서, 조경철 참가
- 5/25, 김정은 제1위원장, 체육성 산하기관 일꾼들 김일성경기장 종업원 등에게 '감사' 전달(5.25,중방)
- 5/25,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개선청년공원 유희장 시찰 요해 및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건설사업 현지지도(5.25,중·평방·중통)
 - 최룡해·장성택·황병서·박춘홍(개선청년공원 유희장), 장성택·랑청송·박춘홍·마원춘(창전거리·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건설사업) 등 동행
- 5/27, 김정은 제1위원장, 5.26 중앙동물원 현지지도(5.27,중통)
 - 장성택, 김양건, 한광상, 리재일, 황병서, 박춘홍, 마원춘, 전일춘 등 동행

나. 경제

● 英 유전개발사, 북한 석유탐사사업 철수(5/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합작해 북한 지역에서 석유 탐사와 개발을 추진하던 영국의 유전개발회사 아미넥스(Aminex)가 최근 북한에서의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함.
- 아미넥스는 지난 2004년 북한 전역에서 20년간 석유 탐사와 개발을 하기로 북한 당국과 계약을 맺었으며 몇 개월 전 발표한 '2011년 연례보고서'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북한에서 석유 탐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금 조달을 위해 큰 석유회사와 제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 회사는 최근 '북한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북한 유전 개발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함.

기타 (대내 경제)

- 최룡해(총정치국장), 5.22 만경대유회장 개건사업 현지 요해 및 5.21 완공을 앞둔 만수대지구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시찰(5.22,중통·중방)
- 최영림 내각총리, 5.24 마감단계에 이른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공사정형 현지요해(5.24,중통)
- 5월 24일 현재, 동해안과 북부고산지대를 제외한 전반적 지역에서 40여일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40%의 농경지대가 가뭄피해'에 직면(5.24,중통)
- 최영림 내각 총리, 5.25 황해남도 연안군 배천군(오현협동농장 등) 농사실태 현지 요해 및 5.24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시찰(5.25,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5.26 신천군 새날농장·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농사실태 요해 및 황남청년제염소 방문(5.27,중방)

다. 사회·문화

● 北 “서해안 가뭄…6월 상순까지 계속”(5/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최근 서해안 지방에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며 “4월26일 이후 현재까지 양강도와 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20 일 이상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함.
- 5월 13일과 14일 대부분 지방에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으며 4월 말부터 대부분 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고온현상이 계속됐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현재 주요 관개용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이 55.4%밖에 안 된다며 특히 금성호의 저수율은 0.5%라고 밝혔는데 “일반적으로 조선에서 봄철에는 자주 지나가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주기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이 특징”이라며 “그러나 올봄의 대기순환체계는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중위도 대륙의 덥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흘러들고 있는 것이 가뭄현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함.
- 통신은 “6월 상순까지 이처럼 대기순환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서해안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고온현상이 나타나면서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봄.

● 인구 50만명 이상 北도시 평양 등 4곳(5/22,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가 평양을 비롯해 4곳이라고 미국의소리

- (VOA) 방송이 미국의 민간기구 ‘데모그래피아’를 인용해 22일 보도함.
- 데모그래피아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양의 인구는 286만5천명으로 추산돼 전 세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850곳 가운데 147위를 차지했고 함흥 75만명, 청진 70만명, 남포 60만명으로 집계됨.
 - 북한의 대도시들의 인구밀도를 보면 남포가 km²당 1만7천800명으로 전 세계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 중 33위에 오름.

● 北 양강도 이외 전역서 모내기 시작(5/22, 평양방송)

- 북한 전역에서 모내기가 시작됐다고 평양방송이 22일 보도함.
- 평양방송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첫해인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며 “현재 북부 고산지대인 양강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농촌에서 모내기에 들어섰다”고 밝힘.

● 中훈춘-北나선-러 하산 잇는 ‘무비자 관광’ 개시(5/25, 지린광파망)

-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북한 나선, 러시아 하산을 잇는 ‘3국 무비자 관광’이 개시됐다고 지린라디오방송의 인터넷판인 지린광파망(廣播網)이 25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 관광노선은 최근 중국 국무원이 중국, 북한, 러시아가 인접한 훈춘에 국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국 투먼장(圖們江·두만강)지역 훈춘국제합작시범구’건설을 승인함에 따라 특색있는 관광노선으로 개통되었으며 훈춘에서 출발하는 북한, 러시아 관광노선은 2010년 9월 3국 간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개통되었으나 북한을 방문하려면 북한 측 초청장을 받는데 10일가량이 소요돼 사실상 북한이나 러시아 관광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 중·북·러 변경 출입국 관리기관의 합의로 이번에 개통된 무비자 관광은 여권만 있으면 여행사가 2~3일간의 절차를 밟아 관광객이 첫 번째 방문국에서 두 번째 방문국으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음.

● 2000년 이후 12년간 北국제논문 187건뿐(5/25,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187건에 불과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과학전문 학술지 평가기관인 톰슨 로이터를 인용해 보도함.

- 북한 과학자들의 논문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중 200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한 자리 수를 넘지 못하다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은 연평균 28건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림.
- 국제학술지에 실린 북한 과학자들의 논문 중에서 77.5%인 145건은 외국 과학자들과 공동연구한 것으로, 이 중에서 중국과 공동연구가 89건 (6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독일(27건), 호주(9건), 한국(8건), 미국(7건), 일본 (5건) 순이었음.

● **北 서해안 지역 50년만의 최악 가뭄(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서해안 지역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이 지역의 강우량은 1962년 이후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이후 지금까지 평양은 2mm, 해주는 5mm, 신의주는 1mm의 강우량을 기록했음.

● **北 50년만의 가뭄…피해 줄이려 안간힘(종합)(5/27, 연합뉴스; 노동신문)**

- 최근 모내기를 시작한 북한이 50년 만에 찾아온 봄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들어 두 차례 내놓은 ‘노작(勞作)’에서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한 바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올해 농사가 가뭄으로 타격을 입을 경우 북한 당국이 피하려는 체제안정까지 해칠 수 있으며, 이를 의식한 듯 북한 매체들은 최근 이들이 멀다하고 가뭄 극복을 독려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란 글에서 “지금 각지 농촌들에서는 모내기 전투가 한창”이라며 “가물(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서해안 등 대부분 지방에서 6월 상순까지 고온과 가뭄 지속 예견, “4월 26일부터 양강도·자강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20일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5.21,중통)
- 평양 등 서해안지방에 “근 30일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은 50년만의 가뭄현상 지속 및 극복할 수 없을 정도 심각” 보도(5.25,중통)
- 전국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 총동원(5.26,중통)

2 대외

가. 일반

- ‘뭍값’ 없이 中어민 풀어줘(종합2보)(5/21, 신화통신)
 - 중국 어선 3척을 붙잡고 거액의 돈을 요구했던 북한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들을 석방했다고 21일 신화통신이 전함.
 -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북한을 떠난 어민 28명은 이날 오전 7시께 랴오닝성 다롄(大連)항에 도착함.
 - 북한에 억류된 이들은 원래 29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종 명단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은 출항 때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北군인들, 가루비누까지 빼앗아가(종합)(5/22, 인민일보)
 - 북한에서 풀려난 중국 어민들이 북한 군인들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고 배 안에 있던 대부분 물건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고 인민일보 인터넷판이 22일 전함.
 - 나포됐던 어선 랴오단위(遼丹漁) 23536호의 선장 한강(韓剛)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어민들을 붙잡은 것은 북한 군인들이었는데 무장한 이들은 쾌속정을 타고 접근해 어선에 오른 뒤 선원들을 곧바로 제압함.
- 北외무성 “G8 정상회의 대북성명 배경”(5/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2일 주요 8개국(G8) 정상들이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핵 실험 등 추가도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8개국 집단의 무모한 정치적 도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8개국 수뇌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선언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 발사와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부당하게 걸고든 것을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며 이같이 밝힘.
- 대변인은 “우리는 적대세력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에 따라 자주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당당하게 끊임없이 행사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순간도 멈춤 없이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함.

● 美 “北 생각 모르겠다..행동으로 평가”(5/23,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자위적 핵 억지력’ 주장과 관련,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 외무성 발표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억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부인한 데 대해 “우리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식당 보이콧”…中 반복 여론 확산(5/23, 연합뉴스)

-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반복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나닷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는 “일체의 북한 기구와 협력하지 말자. 장사도 하지 말자. 북한 식당을 배척하자”는 한 누리꾼의 제안이 전파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음.

● 中 “현재 한반도 정세 우려”(5/23,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3일 “중국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이 22일 G8(주요 8개국) 정상에 대북성명에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데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실 인식을 전함.
- 그는 “중국은 관련된 각 측이 공동으로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말함.

● **백악관 “北 도발행위로 신뢰회복 실패”(5/24,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대북 식량(영양)지원 가능성과 관련,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대남비방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추가 지원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 로즈 부보좌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이 추가 도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불행하게도 최근 몇주간 우리가 지켜본 것은 미사일 발사 실패와 남한을 향한 강도높은 비방이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북한이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함.

● **北에 묻혔던 국군전사자 유해 첫 귀환(5/25, 연합뉴스)**

-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 전사자 유해가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조국의 품에 안겼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국방부는 25일 “1950년 12월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 등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12구가 전날 공군 C-130 수송기 편으로 하와이를 출발해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면서 “북한지역 국군전사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힘.
- 전사자 유해 12구는 6·25전쟁 당시 국군으로 입대해 미군에 배속됐던 카투사로, 미국이 북한과 합동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찾아냄.

● **김정은, 라울 카스트로 축전에 답장(5/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4일 그의 국방위 1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축전을 보낸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했다.

● **美정부, 中서 납북 의심 실종유학생 조사 착수(5/26, 산케이신문)**

-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북한에 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인 유학생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
- 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을 방문 중인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5일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과의 회담에서 미국인 유학생 피랍 여부와 관련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 중 2004년 8월 실종된 유타주 출신의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31)의 행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음.
-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과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 투쟁 태세를 갖춘 것이라고 지적했음.

■ **기타 (대외 일반)**

- 중앙통신사 논평(5.21), 美 전술핵무기의 남한 재배치 관련 ‘北의 보다 강력한 대처능력과 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에 ‘對北적대정책 철회’ 촉구(5.21, 중통/우익호전세력의 어리석은 망동)
 - “현재 남조선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의 핵무기는 1,00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
- 北 외무성 대변인, 5.22 ‘G8 정상회의’의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 비난 ‘공동성명’을 “8개국집단의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배격 및 ‘미사일 및 핵역제력 확대강화’ 강조 중통 대담(5.22 중통·중·평방)
- 日 항공자위대 주력전투기로 F-35전투기를 확정, 구입계획과 관련 ‘나라의 재정이 고갈되는 등 위험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막대한 자금을 무장장비 구입에 쏟아 붓고 있다’며 ‘日 군사대국화책 등에 경각성’ 주장(5.23, 평방/재무장 재침열에 들뜬 자들의 추태)
- 미국의 亞-太지역 미군 재편성 및 군사력강화(오끼나와 美 해병 광도 등 분산배치·항공모함 증강 등) 움직임 관련 “세계지배를 노린 공격적인 배비변경, 우리(北)를 기본과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5.25, 중통·노동신문·중방/미군재편성은 공격형의 배비변경이다)
-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바란다면 ‘對北 적대 의사와 정책을 포기하고 핵위협을 종식시키는 先행동과 책임이 우선’이라고 촉구(5.27, 중통·민주조선/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근본열쇠는 미국에 있다)

나. 6자회담(북핵)

- 中 신화통신 “北, 핵실험 실시 계획 없다” <2보>(5/22, 신화통신)
 - 북한 외무성은 평화적인 위성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안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22일 평양발로 보도함.

- 美 6자 수석대표 “北, 핵실험 해선 안돼”(종합)(5/23, 연합뉴스)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베이징(北京) 공항에서 일본 도쿄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은 한다면 그건 매우 도발적인 행위”라며 “북한이 강행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힘.
 - 그는 이틀간의 방중 기간에 중국 측 카운트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회담하고 푸잉(傅瑩) 외교부 부부장, 류제이(劉結一)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면담함.

- 美日 “北 핵실험 등 도발행위 없으면 대화 용의”(5/24, 교도통신; NHK)
 - 24일 교도통신과 NHK방송은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일본 외무성의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부대신(차관)은 이날 도쿄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함.
 -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야마구치 부대신은 북한에 새로운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행위를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등을 향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경우 대화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함.
 - 야마구치 부대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된 것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평가하고 “이 말대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확인되면 대화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함.
 - 데이비스 대표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에는 서로 상반된 메시지가 포함돼 있어 분석이 어렵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함.

3 대남

● 北, 통진당 수사에 “중복지랄증”(5/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통진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중복지랄증 발작’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취명박 역적패당의 고질병인 ‘중복’지랄증이 또다시 발작했다”며 “취박이 무리들이 그 무슨 시비를 가르다면 서 ‘중복’을 떠드는 것은 남녘의 통일애국세력을 우리와 연결시켜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기타 (대남)

- 韓中日 정상회담시 對北언급(핵실험과 추가도발 불용, 긴밀한 대처 등) 관련 ‘한반도 정세 파국 책임을 회피하고 북침전쟁도발 책동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망동’이라고 거듭 비난(5.21,중통·노동신문/임종에 다달은 자의 필사적 발악)
-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 제시는 ‘대결정책의 총파산으로 극도의 궁지에 몰린 자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라고 재차 비난(5.22,중방·노동신문·중통/새로운 대북전략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
- 주한미군의 ‘비전투원 소개작전훈련’(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우방국 시민 22만명 즉각 대피) 실시는 ‘제2의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작전계획의 최종단계 준비’라고 비난 및 ‘핵억제력 등 강경대응’ 강조(5.22,우리민족끼리/무엇을 노린 ‘소개작전훈련’인가)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南 검찰의 통합진보당 수사를 “중복 지랄증발작”이며 “대통령선거에서 재집권야육 실현을 위한 추악한 정치테러 행위”라고 왜곡 선동(5.25,중통/고질적인 지랄병)
- 韓-日 군사협정(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호상 군수지원협정 등) 체결 추진 관련 ‘북침을 위한 군사공조 결탁, 美 주도의 3각 군사동맹의 완성을 촉진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무모한 망동’이라 비난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5.28-5.31

5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TV, 김정은 기록영화 이례적 신속제작(5/28,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온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찬양이나 이상화를 위한 영상물 제작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난 24일 김 1위원장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 간부들을 데리고 개선청년공원유희장과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 동평양지구에 건설 중인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등 평양시내 여러 곳을 방문했으며 이로부터 이틀 뒤인 26일 오후 5시10분 중앙TV는 “새로 나온 기록영화를 보내드린다”며 김 1위원장이 평양시내 여러 곳을 둘러본 내용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함.
 - 기록영화 제목은 각각 ‘김정은 동지께서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현지도하시었다. 2012.5.24’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를 현지도하시었다. 2012.5.24’ ‘김정은 동지께서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2012.5.24’ 이며 27일 오후 10시30분에는 새로 만든 기록영화 ‘김정은 동지께서 중앙동물원을 현지도하시었다. 2012.5.26’을 내보냄.
- 北,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명기(종합)(5/3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30일 도쿄에서 확인한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는 북한의 개정 헌법 전문(全文)이 실려 있음.
 - 북한은 개정 헌법 서문에 지난해 12월에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3개 문장을 추가하면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 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

를 열어놓으시었다”고 적어넣었는데 2010년 4월9일에 개정한 이전 헌법에는 이같은 표현이 없었음.

● **김정은, 평양시내 소학교·탁아소 등 시찰(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0일 만수대지구 창전거리에 새로 건설된 창전소학교와 경상탁아소, 경상유치원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리재일 노동당 선전부 1부부장, 량청송, 박춘홍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함.

● **北소년들, 代이어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종합)(5/31,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 대표들이 드디어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는 평양에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경축 행사에는 근 2만 명의 소년단 대표들이 참가한다. (소년들은)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 선생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고 목청껏 외치며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 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 준비사업이 완전히 결속됐다”며 “소년단 대표들을 수송할 열차와 비행기, 배 등 운수수단 편성이 끝났다”고 밝힘.
- 또한 “환영준비사업과 숙식보장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졌다”며 “관록 있는 예술단체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는 경축공연 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끝냈으며 개선청년공원유희장과 중앙동물원에서 소년 대표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준비사업을 끝냈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내각총리, 5.30 순천화학연합기업소 현지요해(5.30,중통)
- 최룡해 총정치국장, 5.30 통일거리운동센터 현지요해(5.30,중통)
- 「청년동맹」 중앙위 부장 김남철, ‘조선소년단 창립(1946.6.6) 66돌 경축행사(전국 도·시·군에서 추천된 2만명의 대표들 참가) 대표 선출 및 준비사업 완료’ 언급(5.30,중통)
 - 6월 3일부터 8일까지 유례없는 규모로 성대히 진행 예정
 - 경축행사에 참가할 라선시·함경북도 소년단 대표들, 5.30 오전 특별비행기로 평양 도착(5.30,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5.31 평양민속공원 건설장 현지 요해(5.31,중통)
 - 황해남도(웅진군 강령군 등)와 개성시의 ‘가물과의 투쟁’(5.25, 5,400여 정보 발 물주기 등) 박차 및 만수대지구건설 완공단계 준공검사 준비(5.31,평·중방)

나. 경제

- **北, 심각한 가뭄..외부 지원 기대 어려워(5/28, AP통신)**
 - 북한에 지난 4월27일 이후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지만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한국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AP통신이 북한의 남포발로 28일 전함.
 - 이번 가뭄으로 북한의 서부 해안지역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AP통신은 북한 기상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으며 취재진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방문했던 평안남도의 한 지역의 천수답은 그야말로 거북등처럼 갈라져있는 상태였으며, 농부들도 지독한 가뭄에 지쳐 있었음.

- **中 두만강 지역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착공(5/30, 길림신문)**
 - 중국이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두만강 지역에 국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인 ‘훈춘 국제합작시범구’(이하 시범구)가 정식 착공됐다고 길림신문(吉林新聞)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30일 보도함.
 - 중국 지린(吉林)성은 29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에서 시범구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건설 사업에 들어갔으며 훈춘 서북쪽에 있는 시범구는 전체 면적이 90km²에 이르며 국제산업합작구역, 국경무역합작구역, 북·중훈춘경제합작구역, 중·러훈춘경제합작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조성됨.
 -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이 시범구 건설을 승인하면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통관, 토지이용, 사회기반시설 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국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로 함.

- **작년 북한 대외무역 63억 달러..사상 최대(5/31, 연합뉴스)**
 -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은 제외)이 199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인 63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코트라가 31일 발표한 ‘2011 북한의 대외무역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보다 84.2% 증가한 27억9천만 달러, 수입은 32.6% 늘어난 35억3천만 달러로 전체 무역규모가 51.3%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적자

- 는 7억4천만 달러로 집계됨. 수출은 석탄·철광석 등 광물과 섬유제품, 수입은 원유·곡물·기계류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졌으며, 대중국 무역은 56억3천만 달러(수출 24억6천만 달러, 수입 31억7천만 달러)를 기록, 전년보다 62.4% 증가함.
 - 중국과는 큰 격차이지만 러시아, 독일, 인도, 방글라데시,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네덜란드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와의 무역액은 2% 증가한 1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독일, 인도와의 무역액은 감소함.

다. 사회·문화

● 홍콩서 일반인 대상 北 영상물소개사이트 개설(5/29, 연합뉴스)

- 일반인을 상대로 북한의 각종 영상물과 사진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사이트가 최근 홍콩에서 개설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홍콩에 있는 ‘국제 무비 비디오’(Kuk Jea Movie Video)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목란비디오’ 사이트(www.kmvc5.com)에는 북한 영화와 TV 드라마, 만화, 다큐멘터리, 각종 공연물 등 영상물 1천280건과 음악 7천100여곡, 백두산과 평양 모습 등을 담은 사진 930여장, 북한 우표 1천929장 등 북한의 영상 관련 자료들이 대규모로 올라와 있음.
- 홍콩에 서버를 둔 이 사이트는 조선어(북한말)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운영되고 있다. 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는 회원으로 가입한 뒤 1~3달러 정도의 가격에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음.
-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 소개글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목란비디오’ 영화 및 음악들을 전문적으로 판매보급하는 회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목란비디오회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록영화, 과학영화, 예술영화, 아동영화, TV편집물, 무대편집물과 음악들에 대한 녹음(녹음) 록화물(녹화물) 제작, 판매권, 저작권리권을 가진 유일한 회사”라고 설명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각기 사찰들, 5.28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조국통일기원 법회’ 진행(5.28, 중통·평방)

2 대외

- 北 “美인권보고서는 도적이 매 드는 격”(5/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1년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인권문제를 세계지배 전략 실현의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미국의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이 가장 적대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당연히 매해 고정대상으로 올라 있다”고 강조함.
 - 대변인은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타령은 본질에 있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며 한 나라 인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대형 인권유린행위”라며 “미국이 행동으로는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으면서 말로만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내부를 어찌 보려는 어리석은 심리전 기도”라고 비난함.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대변인 담화(5.29)] 美 ‘2011년 인권보고서’ 발표 관련 ‘인민 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고립 압살해보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 인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대형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5.29,중통)
- △UN 안보리·G8 정상회, 北 장거리미사일 비난 ‘공동성명’, △美·서방 對이란 제재지속, △韓-美-日 동향(맥스 썬더 연습 등, 군사협정체결 추진), △對日문제(자위대, 남부수단 파견) 등을 “5월의 국제정세흐름”이라며 ‘反帝투쟁’ 주장(5.31,중방·노동신문/평화는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3 대남

● 北조평통 “南측 문제는 중북 아닌 중미”(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1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오늘 남조선에서 문제 되는 것은 중북이 아니라 중미”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최근 새누리당이 부정경선과 ‘중북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려는 데 대해 비난하면서 “국회에서 끌어버려야 할 세력은 새누리당 족속과 같은 친미매국역적과 반통일대결광신자, 파쇼와 부정부패의 주범들”이라고 강조함.
- 이어 “보수패당의 이러한 모략소동은 친미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현대판 ‘마녀사냥’, 추악한 파쇼적 정치테러”라며 “보수패당은 이번 기회에 남조선 진보세력을 완전히 말살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함.

기타 (대남)

- 北 ‘조평통’ 서기국, 5.31 최근 남측의 ‘중북세력 문제’는 ‘진보세력의 국회 진출 저지책동,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추악한 파쇼정치테러’라고 ‘反보수투쟁’ 선동 ‘보도 제999호’ 발표(5.31,중통)
- 李대통령의 라디오 연설(5.28, 우리 내부의 중북세력이 더 큰 문제 등)은 ‘진보세력탄압을 위한 색깔·이념공세, 정권연장 타산’이라고 왜곡 비난 지속(5.31,우리민족끼리/까무라치는 길을 택한 이○○의 광란적 칼춤)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6.01-6.03

6월

1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소년단 대규모 행사 개막…‘충성 맹세’(6/3,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오늘부터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가 8일까지 성대히 진행된다”며 “김정은 동지의 은정 속에 조국의 최북단 두메산골로부터 분계연선마을,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와 분교에서 선발된 2만여 명의 모범 소년단원들이 경축행사에 참가할 대표로 평양에 초청됐다”고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소년단 대표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태양복을 누리며 선군 조선의 행복동으로 자라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김정은 선생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준비해 갈 굳은 맹세를 다졌다”고 전함.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내각총리, 6.1 아동백화점 현지 요해(6.1,중통·중방)
- 6.1국제아동절 62돌기념 친선연환모임, 6.1 대성산유원지에서 진행(6.1,중통·중방)
 - 최태복(黨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한광복(내각부총리), 김승두(교육위원장), 량만길(평양시인민위원장) 등 참가
-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 참가 전국 각道市 소년단 대표들의 6.3 평양시내 참관 동향 및 반향 등 집중 보도

나. 경제

- 北, 대량 아사 ‘군량미 공출이 원인’ 인정(6/1,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황해남도에서 연초에 발생한 대량 아사(餓死)와 관련 ‘인재’임을 인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 무역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지난 3월 중순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대량 아사가 군을 위한 과도한 식량 공출이 원인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전함.

- 황해남도의 연안과 백천, 청단 외에 황해북도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도 연초 집단농장의 노동자와 가족 등이 다수 굶어 죽었는데 조선노동당이 작성한 내부 문서는 이에 대해 “황해남도가 수해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특히 농장원들 가운데 식량 부족으로 어려운 세대가 증가했다”고 식량난을 언급함.
- 문서는 이어 “농장 세대가 군량미를 보장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해 식량난이 흉작뿐 아니라 과도한 군량미 공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

● **印尼, 200만달러 對北 식량지원 계획(6/1, 템포)**

-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한의 식량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2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인터넷판이 1일 보도함.
- 템포는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답변을 통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200만 달러 지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전함.
- 그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오래전부터 계획됐지만 시행과 관련한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말함.

● **北 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 순항(6/1, 연변인터넷방송)**

-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벨트를 잇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될 북한 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1일 보도함.
- 중국은 2008년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하면서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원정리~나진항 도로 건설을 약속했는데 훈춘~나진항 53km 구간 중 원정리~나진항 도로는 50.3km임.
- 총사업비는 2억2천만위안(약 396억원)으로,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중국 측이 부담하며, 방송은 지난해 4월 착공된 이 도로 공사가 1차로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돼 노반공사 48km, 포장공사 33km, 소형교량 2개

건설, 중·소형 교량 8개 교각 건설 등을 끝냈다고 전함.

- **김정일 사후 5개월간 日서 현금 56억원 복송(6/2, 요미우리신문)**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5개월간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낸 현금이 신고된 금액만 3억7천760만엔(56억8천800만원)에 이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함.
 - 일본 재무성이 중의원(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집계 결과를 공개했으며, 건수로는 348건이었음.
 - 3월까지의 매달 3천만~6천만엔 정도였지만 고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가 열린 4월에는 2억1천470만엔(32억원)이 북한으로 넘어감.

다. 사회·문화

- **中 유례없는 ‘北 관광 붐’…관광코스 배로 늘어(6/1, 연합뉴스)**
 - 최근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 곳곳의 명승지를 여행하는 관광 코스가 많이 늘어나는 등 중국에서 유례없는 북한 관광 붐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중은 예전에도 3~5개의 관광코스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코스가 10여개로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관광형태도 눈에 띄게 다양해짐.
 - 기존의 북한 관광은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이나 금강산 인근 원산공항에 내려 버스로 이동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비행기 이외에 기차, 자가용, 유람선, 도보 관광 등이 생김.
- **北주민 외부정보 획득, DVD→중국인→라디오 順(6/3, 연합뉴스)**
 - 북한 주민들은 DVD와 CD, 라디오, 중국인 등을 통해 외부사회의 정보를 얻고, 이를 구두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3일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박대광 현역연구위원과 김진무 연구위원은 KIDA가 최근 발간한 ‘국방정책연구’(2012년 봄호)에 게재된 ‘북한으로의 외부사조 유입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 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

해 외부정보 유통과 전파 행태를 추정함.

- 설문조사에는 2008~2009년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사람 가운데 71명(남 33명, 여 38명)이 참여했으며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외부정보 획득 수단을 DVD·CD(21.8%), TV(18.3%), 중국인(17.6%), 라디오(15.5%), 휴대전화(6.3%), 전단지(5.6%) 순으로 꼽음.

2 대외

● 中, 北 핵보유국 헌법 명시에 직답 피해(6/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이 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 ‘핵 보유국’으로 명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류 대변인은 자국의 국제뉴스 전문매체인 환구시보 기자가 북한이 헌법을 고쳐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게 각 측의 공통 이익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함.

● 中어선들 뒷돈 주고 北해역서 불법어로(6/2, 남방인물주간)

- 최근 중국 동북 지역의 어선 3척이 정체불명의 북한 무장 선박에 나포됐다. 풀려나 북중 접경 해역에서의 어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중국의 일부 어선이 북한에 뒷돈을 주고 불법어로를 한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중국 주간신문인 남방인물주간(南方人物周刊)이 2일 보도함.
- 이 신문 기자가 북중 접경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많은 랴오닝성 다롄(大連)과 단둥(丹東)의 어민들을 현장 취재한 결과 환경 오염과 어족 자원 고갈로 중국쪽 해역에서 더는 조업할 수 없게 된 선주들이 월경을 파주는 대가로 북한에 돈을 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임.
- 단둥의 한 선주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둥에서 국경을 넘어 고기잡이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중국 쪽 바다는 이미 싹쓸이 조업으로 고기가 없어서 북한(해역)에 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음.

3 대남

- 北 “6·15행사 남·북·해외서 따로 진행”(6/1,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남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2돌 기념행사를 북, 남, 해외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함.
 - 공동보도문은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2월 상순 중국 선양에서 진행된 북, 남, 해외 실무접촉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2돌을 맞아 금강산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고 “하지만 남측 당국의 부당한 접촉거부와 악랄한 동족대결 책동으로 인해 북, 남, 해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기념행사를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한다”고 전함.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15공동선언 12주년을 맞이해 올해 기념행사와 관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한다”며 “이번 공동보도문은 1일 오전 10시에 서울과 평양, 해외 각 지역에서 동시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기타 (대남)

-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측위원회, 6.1 '南' 당국의 접촉거부와 동족대결책동으로 인해 한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기념행사를 南, 北, 해외 각 지역별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동보도문 발표(6.1,중통·평방)

6.04-6.10

6월

2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김영일, 동남아 순방 위해 평양 떠나(6/5,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5일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 방문을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김영일 일행을 비행장에서 리용철 당 부부장, 키야키사 케우반디 북한 주재 라오스 대사, 레캉바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 류홍차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 등이 배웅함.

- **평양서 北소년단대회…김정은 또 공개연설(종합)(6/6,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소년단 창립일인 6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 소년단 연합단체대회에 참석해 축하연설을 했다고 북한매체들이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대회장인 김일성경기장은 조선소년단 창립절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해 모여온 4만여 명의 학생소년들로 차고 넘쳤다”고 전함.
 - 김 1위원장이 주석단에 나오자 소년단원들이 그에게 꽃다발을 주고 붉은 넥타이를 매렸으며 10분간 이어진 공개연설을 통해 소년단 창립절을 맞은 소년단원들을 축하하고 “김일성·김정일 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최태복 당 비서,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 비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김승두 교육위원장 등 간부들과 모범 소년단원들이 대회장 주석단에 앉음.

- **김정은, 北소년단 창립 경축 음악회 관람(6/7,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소년단 창립 66돌을 경축하는 은하수관현악단 음악회 ‘미래를 사랑하라’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최태복 당 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1부부장, 김원홍 국가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조연준 당 조직부 1부부장,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 등이 함께 관람함.
- **김정은, 北소년단 대표들과 기념사진(6/7,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북한 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7일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 선전비서, 최태복 당 교육담당 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 등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음.
- **北, 김정은 생모 이름 바꾼 기록영화 배포(종합)(6/8, 연합뉴스; 산케이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모를 '리은실'이라고 지칭한 기록 영화가 북한에서 상영되고 있다고 일본에 있는 북한 인권 단체가 주장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전함.
 - 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라는 단체는 북한 내 협력자로부터 이같은 정보를 입수했는데 약 80분 분량의 이 영상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모 고영희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에 동행한 모습이나 어린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3명이 함께 있는 모습 등이 담겨 있음.
- **北소년단 행사 폐막...김정은 찬양 일색(6/8,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된 소년단 행사가 8일 폐막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지난 3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북한 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에는 북한 전역의 모든 소학교, 중학교에서 선발된 2만여 명의 소년단 대표가 참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음.
- 북한 매체들의 이날 보도도 김 1위원장의 ‘어린이 사랑’과 ‘승고한 후대관’에 대한 찬양 일색이었는데 노동신문은 이날 김 1위원장의 ‘배려’에 소년단원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하면서 “김정은 동지에 대한 천만 군민의 막을 수 없는 매혹의 힘을 똑똑히 알려면 우리 소년단원들의 눈물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김정은 생모 고영희 베일 벗었다(6/10, 마이니치신문)

-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10일 베이징발 기사에서 고영희(2004년 6월 사망)가 아들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남편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과 활동하는 모습을 담은 내부 영상 자료를 입수했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
- 북한 세습 왕조인 김 패밀리의 일원으로 고영희의 활동 모습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마이니치신문이 입수한 약 1시간30분짜리 영상의 제목은 ‘위대한 선군(先軍) 조선의 어머니’로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촬영된 고영희의 활동 모습이 수록됐음.
- 영상은 김 제1위원장이 어린 시절 그림 그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 김 국방위원장의 신변 보호를 위해 권총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김 국방위원장의 야전 점퍼를 손질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음.

김정은동향

- 6/6,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상유치원에 보내는 선물 전달모임, 6.4 진행(6.5,중방)
- 6/6,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6.6 ‘조선소년단’ 창립 66돌(‘45.6.6) 경축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참석 및 ‘축하연설’(6.6,중통·중방·평방)
- 6/7, 김정은 제1위원장,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행사 대표들과 기념촬영(6.7,중통·중방)
 -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경희, 장성택, 김기남, 최태복, 문경덕, 리영수, 전용남(1비서)을 비롯한 청년동맹 중앙위 비서들 참가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축하연설을 사랑과 믿음으로 받아안고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동감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자’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 및 찬양’ 반향 (6.8,중통·노동신문·중방/선군시대의 참된 소년근위대로, 크나큰 영광 길이 전하며)

기타 (대내 정치)

- 北, 6.4 박의춘(외무상)·궁석웅(부상) 참가下 캄보디아 정부 부수상 겸 외무 및 국제협조상 일행 위해 연회 마련(6.4, 중통)
-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6.9 새집들이를 한 희천2호발전소 종업원들(100가구)에게 컬러TV·살림도구 등 '선물' 전달(6.9, 중통·중방)
- 최영림(총리), 개건중인 평양시 제1목욕탕을 돌아본 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 요해(6.10, 중통·평방)

나. 경제

● 北 평양 골프관광 상품 판매...외화벌이(6/5, 연합뉴스)

-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여행사와 합작, 평양 골프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자사 홈페이지에 평양 골프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올렸는데 평양 아마추어골프시합 참가를 포함해 9월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일정의 평양 관광 상품의 가격이 1천800유로(한화 약 260만원)라고 밝힘.
- 이 골프시합은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와 북한의 여명무역회사가 지원하며 평양 국제골프클럽이 보증한다고 여행사 측은 전했는데 여명무역회사에 대해 "북한 내 가장 큰 대외무역회사"라고 소개함.

● 北, 협동농장 제한적 개혁 검토(6/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현재의 협동농장 체제를 소규모 농장 체제로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RFA는 북한 고위간부들과 자주 접촉한다는 조선족 대북사업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중국의 토지개혁 모델을 검토하면서도 중국식으로 토지를 개인에게 분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대규모 협동농장을 소단위로 쪼개 규모를 소형화하려고 한다"고 전함.

● 北 "황금평·위화도특구 무비자 출입"(6/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특수경제지대로 규정한 평안북도 신의주의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에

- 외국인은 무비자로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혀짐.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대로 출입하는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갖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비자)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밝힘.
 - 통신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채택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소개하며 “이곳에서 투자가는 관세와 기업소득세, 토지 이용 등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가공, 중계,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특구에 들어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경제지대 건설에 필요한 물자, 그밖에 정해진 물자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北 민화협 간부 “중국과 경제협력 강화할 것”(6/7, 연합뉴스)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고위 간부가 7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천시가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시에 따르면 리창덕 북한 민화협 부회장은 이날 인천시, 단둥시 등이 공동 주최한 ‘서해협력 포럼’이 열린 단둥 크라운 프라자 호텔을 방문해 송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단둥을 비롯해 선양(沈陽) 등이 중요한 곳이 되고 있으며, (북한은 이곳에서의)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이에 대해 송 시장은 “6일 선양에서 인천과 선양 사이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선양과 단둥 등지에서 남북이 함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나가자”고 제안함.

■ 기타 (대내 경제)

- 평북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투자가는 관세와 기업소득세·토지이용 등에 특별혜택을 받는다”고 소개하며 ‘지대 출입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비자)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강조(6.7,중통/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다. 사회·문화

● 제3회 평양 아마골프대회 내년 5월25~27일(6/4, 연합뉴스)

- 제3회 평양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내년 5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리게 된다고 영국의 루핀여행사 측이 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루핀여행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웹사이트 ‘northkoreanopen.com’에 따르면 내년 골프대회는 연습 하루,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며,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아마추어 골프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음.
- 골프대회를 포함한 5월23일부터 28일까지 일정의 여행상품 가격은 999파운드(한화 약 180만원)라고 루핀여행사 측은 밝힘.

● 中 미술품 시장서 北작품 관심 확대(6/4, 양성만보)

- 중국 미술품 시장에서 북한 작품에 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양성만보(羊城晚報)가 4일 보도함.
- 신문은 성수기를 맞은 광저우(廣州) 예술품 경매시장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중국 내 북한 미술품 시장이 현재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은 크다고 전함.
- 북한 미술품은 소박하고 복고적이며 특유의 정서가 묻어난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문 소장가들도 생겨나고 있으나 유통되는 수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아직 고정적인 가격 체계와 안정적인 유통경로가 형성되지 않아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신문은 평가함.

● 평양 젊은이에 유행하는 옷은 후드티(6/6, 연합뉴스)

- 북한 평양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패션 등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중국의 격주간 시사잡지 세계박람(世界博覽)이 밝혔다고 6일 연합뉴스가 전함.
- 세계박람은 사업 목적으로 북한에 상주하거나 자주 오가는 중국인들의 최신 경험담을 통해 요즘 유행하는 북한의 신세대 문화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 등을 소개함.
- 평양에서 장사하는 화교 A 씨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옷은 모자 달린 셔츠인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 같다”면서 “시장가격이 200위 안(약 3만7천원) 정도로 비싼데도 사려는 사람이 많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함.

● 中 단둥서 올 10월 북·중 첫 종합박람회(6/7, 단둥일보)

- 북·중 접경도시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오는 10월 12~16일 ‘2012 북·중 경제무역문화여행박람회’가 열린다고 현지 매체인 단둥일보가 7일 보도함.
- 이번 행사에서는 ‘우의·합작·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양국 상품 전시와 경제무역 상담, 공예품 전시, 문화예술 공연, 관광자원 전시·합작 상담 등이 진행됨.
- 박람회에는 중국 각지의 대북 수출업체 400여 개사가 참가해 의류, 전기 전자, 식료품, 기계류 등 12개 품목의 제품을 전시할 계획이며 북한에서는 문화예술단 115명을 포함해 500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임.
- 북측은 100여개 기업이 의류, 민속문화, 식료품, 건축자재, 전기전자, 기계 설비 등 10개 품목의 제품을 선보일 계획임.

● 北 “런던올림픽에 11개 종목 49명 출전”(6/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여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0차 하계올림픽에서 11개 종목에 49명의 선수를 출전시키게 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현재까지 조선은 여자축구와 마라톤, 탁구, 레슬링, 역도 등 11개 종목에서 49명(여자 35명, 남자 14명)이 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힘.
- 이어 “역도, 레슬링 등의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며 “여자축구선수들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전함.

● 中 연변서 올 8월 北 미술품 경매(6/9, 연변인터넷방송)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에서 오는 8월 북한 미술품 경매 행사가 열린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전함.
- 9일 연변인터넷방송에 따르면 연변공예미술협회 등은 올해 자치주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10일~9월12일 연변 민족공예미술품 교역시장에서 ‘제1회 연변문화예술품교역회’를 개최한다고 전함.

- 중국과 주변 국가의 문화예술가와 작품 수집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교역회에서는 첫날 개막식에 이어 8월11일 북한 미술품 경매가 진행됨.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北, 여자축구·마라톤·탁구 등 11개 종목 49명(여자 35명, 남자 14명)이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 획득(6.8,중통)

2 대외

가. 일반

● 北, 일본 이지스함 서해상 배치 검토 맹비난(6/4,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4일 일본이 서해 상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매국이 열어준 항로를 따라 일본 함선이 서해 상에 들어오려 한다”고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이명박 패당의 사대 매국 행위로 하여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침략의 마수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미국과 일본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결탁이 서해지역에서 벌어지게 된 데는 이명박 일당과 보수세력의 사대 매국행위를 떠나서 결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것은 손아래 동맹국을 돌격대로 내세워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도 철저히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함.

● 北, 다양한 채널로 日에 유골문제 협의 요청(6/6, 산케이신문)

-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인 유골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마쓰바라 진(松原仁) 납치문제담당상과 가까운 시부야구 지방의원 등은 지난달 15~19일 북한을 방문해 조선대외문화연락회의 황호남 국장(일본 담당)을 만남.

- 당시 황 국장은 평양 시내 중심부 건설 현장에서 복수의 옛 일본군 헬멧과 함께 유골이 발견됐다면서 공사를 중단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정부가 조속히 의견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함.

● **美 킹 특사 “현재 對北 식량지원 검토 안 해”(6/8, 연합뉴스)**

- 일본을 방문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8일 말했음.
- 킹 특사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식량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그것을 검토할 것인가? 아마도(Possibly).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가? 아니다(No)”라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이 북한이 따라갈 훌륭한 사례라고 지적했으며, 킹 특사는 만일 북한이 미얀마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아마 국제사회는 미얀마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우호적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나는 북한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나는 미얀마가 북한의 훌륭한 선례라고 본다”고 말했음.

● **中, 금수 조치 어기고 대북 무기 수출(6/9, 텔레그래프)**

- 중국이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조치를 어기고 북한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 차량을 포함한 핵심 부품들을 공급해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8일(현지시간) 보도
- 이 신문은 국가를 특정하지 않은채 동북아 지역 국가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회사들이 유엔 결의 1874호를 위반해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 유엔은 2009년 6월 12일 북한의 화물을 검사하고 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떠한 품목의 거래도 금지하는 내용의 1874호 결의안을 채택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기업들은 금수조치된 물품들을 하부 위장 조직을 통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밀수하거나 중국 기업과 공모해 서류를 위조하고 다른 물품인 것 처럼 속여 북한으로 가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북한 기업에는 무기와 군사 장비를 주로 취급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도 포함돼 있음.

● 국제전기통신연합, GPS 교란 북한에 ‘경고’(6/10, 교도통신)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북한의 GPS 신호교란에 대해 경고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
- 이 통신에 의하면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하마둔 투레 사무총장은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한국에서 지난 4월부터 5월에 걸쳐 일어난 GPS 신호교란과 관련 북한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 북한의 GPS 신호교란은 5월 중순 이후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경고를 받아, 국제기관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임.

● 中, 6월 들어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6/10, 도쿄신문)

- 중국 당국이 6월 들어 북한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현지업자에 내렸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10일 보도
- 신문은 일본 수산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지난달 서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과 어민을 북한이 나포했다가 풀어준 사건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중국이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게 사실이라면 북한측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 랴오닝(遼寧)성 북한 접경도시 단둥(丹東)의 관련업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도착한 중국 정부의 지시는 북한산 수산물을 6월1일부터 당분간 들여오지 말라는 내용임.
- 북한 동북부 항구 라선에서 수산물을 취급하는 다른 중국인 업자도 동일한 통지를 받았으며 “그런 통달(지시)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무역성·대외문화연락처 일꾼 등, 6.6 나이지리아 여객기추락사고 관련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관 조의 방문(6.6,중통·중방)
- 北 외무성 대변인, 6.9 ‘남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책임 전가 및 ‘이를 부추기고 눈감아주는 주변국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담화’ 발표(6.9,중통·중·평방)
- 일본과 미국의 ‘日美합동군사연습’(6.6-9, 규슈섬) 비난(6.9,중통·평방)

나. 6자회담(북핵)

● 후진타오 “대화·타협이 유일한 북핵 해법”(6/6 신화통신)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대화와 타협만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선택이라는데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6일 보도함.
- 후 주석은 제12차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개막 전에 회원국 언론매체에 돌린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으며 “SCO 회원국들이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후 주석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SCO 회원국들은 ‘6자(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와 이란이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면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풀기를 바라며 관련된 각 측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함.

3 대남

● 북한軍 “성전·사죄 중 최후선택해야” 대남통첩(6/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언론사에 대해 ‘보복 성전’을 당하거나 아니면 대북사과를 하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공개통첩장을 통해 “지금 평양에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역적패당은 아이들을 위한 이 경사스러운 경축행사에도 심술사납게 찬물을 끼얹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총참모부는 “협약하게 번지는 사태와 관련해 역적패당에게 최후통첩을 보낸다. 우리 군대의 타격에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기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가겠는가”라며 “스스로 최후의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함.
- 총참모부는 “(남측은) 5월29일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채널 A방송과 KBS, CBS, MBC, SBS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를 동원해 일제히 우리 어린이들의 경축행사를 비난하는 여론공세를 펴고 있으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새로운 악행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함.

● 北 수호이 전투기 개성까지 위협비행(종합)(6/6, 연합뉴스)

- 북한 공군의 수호이 전투기(Su-25)가 지난 5일 개성 상공까지 남하해 위협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6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6일 “어제 오후 5시 이후 북한의 Su-25로 추정되는 전투기 1대가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개성 상공까지 2~3차례 위협 비행한 뒤 돌아갔다”면서 “위협 비행시간은 불과 수분에 그쳤다”고 밝힘.
- 북한 전투기가 올해 들어 TAL을 넘은 것이나 개성 상공까지 도달해 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소식통은 설명함.
- 군의 한 소식통은 6일 “5월 중순 이후 북한 전투기들의 출격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많게는 하루 50여회 가량 출격하고 이 가운데 2~3차례는 전술조치선(TAL) 인근까지 남하 비행하고 있다”고 밝힘.

● 北대남매체 “탈북자는 변절자”(6/7,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7일 “탈북자는 변절자”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탈북자들을 변절자라고 하는 이유’란 개인필명의 글에서 “몇 푼의 돈 부스러기에 잔명을 걸고 어머니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자들의 나발통이 될 것을 자처해 나서는 자들을 변절자로밖에 달리 부를 수 있겠는가”라며 탈북자를 비난함.
- 매체는 “변절자란 지조나 신의를 저버린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며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품을 배고프고 चु고 힘들다고 등지고 자기의 부모 처자를 저버린다면 그런 자들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르겠는가”라며 “이런 자들은 변절자라고 부르기 전에 인간쓰레기,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한 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함.

● 수은, 북한에 식량차관 상환 촉구(6/8, 연합뉴스)

-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용환)은 8일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4일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달러의 상환기일이 6월7일이라고 조선무역은행에 통지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전함.

● 재미탈북자 “임수경, 의원직 즉각 사퇴해야”(6/8, 연합뉴스)

- 재미 탈북자모임인 미주탈북자인권·선교회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은 8일(현지시간)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최근 ‘막말 파문’과 관련, 의원직 사퇴를 촉구
- 탈북자 마영애(55·여)씨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의 독기서린 말은 그의 북한에 대한 태도, 탈북자들에 대한 평소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석고대죄하고 주재님은 국회의원직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 지난 1989년 임 의원이 전대협 대표로 방북했을 당시 감시원 자격으로 금강산 관광 등에 동행했다는 마씨는 “나도 당시는 진정으로 그를 ‘통일

의 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북한 독재국가에서 짐승처럼 살다 간신히 자유를 찾은 탈북자들을 '변절자'로 중요한다면 '통일의 꽃'이 아니라 '통일의 독버섯'"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

● 北 “南도발 부추기는 주변국은 책임져야”(6/9,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남조선에 그들의 이기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이명박) 역적패당의 위협하고 무모한 도발책동을 계속 부추기고 눈감아주는 주변국이 있다면 그 후과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소년단원들의 대축전에 대해 유독 이명박 역적패당만 악담질을 계속 해대고 있으며 그 도수는 한계선을 넘어섰다”며 “미친x마냥 최후발악을 하는 역적패당이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엄청난 재앙을 몰아올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엄중성과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대변인은 “역적패당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도발을 걸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데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며 “우리를 한사코 자극해 현재 계획하지도 않고 있는 핵시험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강경 대응조치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리가 호전적인 것처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와 주변국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반공화국 제재압박 분위기를 조성해보자는 것”이라고 비난

● 6·15선언 12돌 맞아 남북 작가 풍경展(6/10, 연합뉴스)

- 6·15 남북공동선언 12돌을 앞두고 남한과 북한 풍경화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인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고양문화재단은 남한의 박정렬(66)·서용선(61)·손장섭(71)·황재형(60)과 북한의 정창모(1931-2010)·선우영(1946-2009) 등 남북 한국화와 조선화의 대가 6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풍경남북-풍경으로 넘어 보는 우리 땅’ 전시를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에서 연다고 전함.
- 한반도 남북의 풍경을 남북한 작가들의 풍경화를 통해 한 자리에서 함께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며, 주최 측은 작고한 북한 정창모와 선우영의 작품은 남한에서 처음 전시된다고 설명했다.

● 남쪽 종북논쟁에 놀란 北...연일 민감 반응(6/10, 우리민족끼리)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0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남조선 보수패당이 종북세력 척결소동을 벌이는 저의는 보수세력의 청와대 재입성에 장애로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말끔히 없애자는 것”이라며 “한 야당 내부에 일련의 문제가 제기된 것을 기회 삼아 종북세력 척결소동을 일으킴으로써 량북통일세력을 밀뿌리째 제거하고 중도층까지 끌어당겨 보수층의 지지기반을 더 강화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 매체는 “종북좌파, 종북세력에는 미국과 일본을 배척하고 자주를 지향하며 이명박패당과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반대하고 민주를 영원하며 전쟁과 분열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 평양을 방문해 우리에게 대한 좋은 소리를 하고 성지(聖地)들도 다녀간 박근혜도 종북주의자인 셈”이라며 “필요하다면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한 말이나 행동 또는 우리와 합의한 내막들도 전부 공개해줄 수 있다”고 강조함.

■ 기타 (대남)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00호’(6.9),李大통령 친인척 및 측근 인물들(박희태 前 국회의장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 등)의 ‘부정부패사건 연루’ 거론 및 ‘反정부투쟁 전개’ 선동(6.9,중통·중·평방)
- 남측의 지난(4.28-5.13) GPS 전파교란사태 ‘北 소행설’ 제기는 “대결광대극 연출, 또 다시 우리(北)를 걸고드는 모략날조극의 구실”이라고 비난(6.9,평방/동족대결을 위한 모략극 전파교란설)
- 군사기밀(GPS전파교란장치 등)유출 간첩사건 관련 ‘서투르게 꾸며낸 모략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색깔론, 종북논란’에 대한 反보수투쟁 선동(6.10,중통)

6.11-6.17

6월

3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군사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김정은 두달 전 논문 뒤늦게 공개(6/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즈음인 4월20일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밝힘.
 - 김 1위원장은 이번 논문에서 “김일성 동지는 역사에 있어본 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라며 “김일성 동지는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 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주체의 태양”이라고 찬양함.

- 北 김정일 死後 6개월…김정은시대 진입(6/17, 중국신문사)
 -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6개월 동안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정권교체로 김정은 시대가 열렸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17일 보도함.
 - 중국신문사는 지난해 12월 17일 김 위원장 사망 후 6개월 특집 기사에서 이같이 평가했으며 이 매체는 우선 북한의 내정, 외교, 군사, 민생 분야 등에서 김정은으로 힘이 넘어왔다면서 북한이 이전의 신비주의에서 벗어나 세계 앞에 실제 모습을 드러낸 게 특징이라고 지적함.
 - 이어 시계열적으로 볼 때 작년 12월 30일 김정은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의 추대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올라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로 등극했고 지난 4월 11일 노동당 대표회의에서 노동당 제1서기, 그리고 이틀 후인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지명돼 군·당·정 3권을 틀어쥐었다는 게 중국신문사의 설명임.
 - 매체는 김정은이 선대의 선군정치 노선을 이어받아 국방역량 건설 강화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면서 대(對) 남한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친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함.

김정은동향

- 6/12,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6.12 러시아 국경절 즈음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6.12,중통)
· 駐北 러 대사, 6.11 自國 국경절 즈음 리룡남(무역상)·리영철(黨 부부장)·공석웅·기광호(외무성 재정성 부상) 등 초청下 연회 개최(6.11,중통)
- 6/13, 김정은, 조선혁명박물관 건설에 모범을 보인 봉화지도국 노동자 등에 감사(6.14,중방)
- 6/17, 김정은 제1위원장,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전달(6.17,중방)
- 6/18, 김정은 제1위원장, 희천발전소 건설에 기여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6.18,중방)

기타 (대내 정치)

- 최룡해 총정치국장, 6.12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 현지요해(6.12,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상보(6.15)] 만수대지구 창전거리건설 완공('11.5.22 착공, 인민극장·초고층 살림집 등)은 "인민사랑의 최고정화, 김정일애국주의가 안아온 세계적인 창조물"이라고 선전(6.15, 중통·중방)
- 최영림 내각 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기술개선정형 현지 료해 및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시찰(6.15,중통·중방)
- 조선기록영화 '우리 당을 백전백승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향도', 6.16 김정일 黨 사업개시 48돌 즈음 인민문화궁전에서 상영(6.16,중통)
· 김영남, 최영림을 비롯한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 성, 중앙기관 일꾼들 관람
- 北 단천제련소, 아미노산 미량원소 복합비료생산공정 건립(6.16,중통)

나. 군사

● 北전략로켓사령관에 김락겸...당중앙군사위원회(종합)(6/1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4월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전략로켓군 사령관(옛 미사일지도국장)에 김락겸 중장(우리의 소장에 해당)을 임명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동안 미사일지도국장은 최상려 상장(우리의 중장에 해당)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최상려는 2010년 9월 28일 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인물임.

다. 사회·문화

● 北 아리랑공연 올해로 막 내린다(6/11, 연합뉴스)

- 북한의 대집단체조 ‘아리랑공연’이 올해 10주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11일(현지시간)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와치’에 따르면 중국 고려여행사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평양 소식통이 올해 아리랑공연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힘.
- 고려여행사는 “아리랑공연은 지난 2002년 처음 선보인 뒤 2007년부터 매년 막을 올렸으나 시대상황에 맞춰 재구성하기 위해 막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지막 공연을 보고 싶은 고객들은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고 권고했으며 “내년은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이자 한국전쟁 휴전 60주년을 맞는다”며 “아리랑공연 주최측은 전혀 새로운 공연을 내년에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임.

● 北 어린이 영양실조 심각(6/12, 연합뉴스)

- 수백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신체와 정신 발육에 필요한 음식, 의료 및 건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이 12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유엔은 이날 발표한 북한의 인권 상황 최신 보고서를 통해 5세 이하 북한 어린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식량 부족난이 심각한 농촌 지역 어린이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전함.

● 北 “서해안 4월 말부터 심한 가뭄 지속”(6/12, 연합뉴스)

- 북한의 서해안지방에서 4월 말부터 시작된 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함.
- 통신은 “6월에 들어와 강원도의 고산별과 통천별을 제외한 동해안 지방에서는 20mm 이상의 비가 내려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서해안지역인 평양시와 남포시, 평안남도 일부와 황해남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10mm 이하의 매우 적은 비가 내렸다”며 “특히 평양별과 온천별, 은률별, 재령별, 연백별 등 서해안 중부 별방지대에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밝힘.

- 통신에 따르면 4월 말부터 현재까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은 지역은 평양시 강남군, 황해남도 안악군, 황해북도 송림시와 중화군, 남포시 용강군과 강서구역, 황해남도 은천군 등이며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이 기간에 내린 빗물의 양은 1~5mm로 기상관측 이래, 평양은 10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라고 통신은 전함.

● 北 평양 능라유원지 7월27일 완공(6/13,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전승절(7월27일)을 맞으며 평양시민이 능라인민유원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자들은 남은 공사에 박차를 가한다”고 보도함.
- 평양 대동강 한가운데 있는 1km² 남짓한 섬인 능라도에 건설된 능라유원지는 능라곱등어관, 능라물놀이장, 능라유희장 등으로 구성되며 조선신보는 “능라인민유원지 건설은 마감단계에 있다”며 “유희시설도 시험 운전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힘.
- 신문은 “능라인민유원지 건설은 김정일 장군이 발기했다”며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유원지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줬다”고 강조함.

● 北 평양시 주택건설 마감단계…창전거리 완공(6/17,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들은 평양시 중심구역의 창전거리의 주택단지가 이미 완공됐고 현재 평양시 외곽지역의 주택지구 건설도 마감단계에 들어갔다고 잇따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수도(평양)의 살림집(주택) 건설에 참가한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공사성과를 나날이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용성과 서포, 역포지구를 비롯한 수도의 살림집 건설장에서 이미 수십동에 달하는 고층아파트의 골조 조립이 성과적으로 끝났다”고 밝힘.
- 평양시의 북쪽, 서북쪽, 남쪽에 각각 위치한 용성구역과 형제산구역 서포동, 역포구역 등 주민 거주지는 모두 평양시 외곽지역임.
- 노동신문은 “일부 시공단위에서는 골조 공사를 마감한 데 이어 미장작업과 건구(창틀과 문틀) 설치를 다그쳐 가까운 앞날에 살림집 건설을 완공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극장과 초고층, 고층아파트들, 각종 봉사시설이 멋

들어지게 솟아오르고 조형화, 예술화, 공원화가 참신하게 실현된 창전거리는 볼수록 희한하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수대지구의 옛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거리를 단 1년 만에 일떠세우는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사에 일찍이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강조함.

● 北 황해북도, 60년 來 최대가뭄(6/17, CCTV)

- 북한의 황해북도가 60년 만의 최대 가뭄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고 중국중앙(CC)TV가 북한 매체를 인용해 17일 보도함.
- CCTV는 북한 전역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황해북도는 대부분 논밭의 농작물이 고사해가고 있고 피해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함.
- 이어 최근 집계로는 황해북도의 옥수수 재배지역 15%에 물 공급이 부족하고 그 가운데 2천여 정보(19.834km²)에서는 옥수수가 아예 싹도 틔우지 못한 채 말라죽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밀과 보리, 감자 등의 작물 수확 가능성도 떨어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황해북도(황주군·서흥군·연탄군·수안군·송림시의 피해가 그중 심각)에서 2,000여 정보의 강냉이가 말라죽는 등 “현재 밀·보리·감자 농작물수확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黃北道の 혹심한 가뭄피해 심각’ 보도(6.15,중통)

2 대외

● 美 “北 국제의무 준수 기대 변함없어”(6/12,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동으로 평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대해 “북한이 좋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good thing)’”이라고 말함.
- 눌런드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의무를 이행하고, 이웃국가들에 대해 어떤 형태의 도발적인 언행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지적함.

● 이란, 북한에 분유 등 인도적 지원(6/12, 파르스(Fars)통신)

- 이란이 북한에 추가로 인도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Fars)통신이 11일 보도함.
- 이란의 적신월사 총재인 아불하산 파그히는 중국 등으로부터 분유 등 식품과 각종 의료 관련 물품 등 구호품을 구입해 북한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북한 측에 통보함.
- 북한 적십자사 관계자는 앞서 이란으로부터 담요와 텐트 등 구호물품들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하고 향후 몇 개월 내 강한 폭풍우가 예보돼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함.

● 중국군, 압록강서 부교 이용해 도하 훈련(6/13, 연합뉴스)

-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압록강변에서 중국군이 도하 훈련을 하는 현장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함.
- 중국 현지시간으로 12일 오후 4시 압록강을 끼고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단둥시내 중심가에서 강변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7~8km가량 떨어진 강가에서 얼룩무늬 군복에 주황색 구명조끼를 착용한 중국군 100여명이 부교(浮橋)를 이용해 도하 훈련을 하고 있었음.

- 군인들은 6~7척의 소형 선박으로 길이 20~30m의 부교 10여개를 강이쪽저쪽으로 이동시키며 유사시 인원과 장비가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임시교량 설치 훈련에 열중함.
- 중국군의 훈련이 진행되던 시각에 강 맞은편 신의주 쪽 강가에는 정박 중인 북한 화물선 몇 척이 눈에 띈 별다른 인원이나 장비의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둥 주민들은 예전에도 중국군의 압록강 도하 훈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힘.

● **中외교부, ‘미사일차량 北수출 보도’ 부인(6/13,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탑재 차량을 판매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함.
-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대량 살상무기 및 운반 도구의 확산에 결연히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와 자체적인 반확산 수출 법규를 준수해왔다”고 밝힘.
- 류 대변인은 북한에 탄도미사일 탑재 차량을 판매한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관련 보도는 부정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는 이어 “중국 기업이 안보리 결의와 중국법을 위반하는 물품을 수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임.

● **北 대표단, 베트남 농촌개발 현장 방문(6/13, 연합뉴스)**

- 김영일 국제비서를 단장으로 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베트남 북부 타이빙성을 방문, 현지의 농촌 개발 모델을 둘러봤다고 베트남 언론이 13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타이빙성 공산당 째 캄 뚜 서기는 12일 북한 노동당 대표단과의 실무회의에서 베트남 정부의 신농촌개발계획(2010~2020년)에 따른 지역발전상을 소개하면서 2020년이 되면 모든 지역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신농촌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북한 노동당과 베트남 공산당의 협력 연대를 강조하면서 “타이빙성과 인민들은 북한 노동당이 과거 민족통일과 독립을 위한 전쟁, 이후 베트남의 국가 건설과 국방에 기여한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김영일 비서는 타이빙성의 농업생산과 빈곤 해소, 고용 등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베트남 공산당의 올바른 정책으로 이런 성과가 가능했다고 답함.
- **中 훈춘 ‘북중 경협’ 급진전..단동에 도전장(6/16, 연합뉴스; 경제관찰보)**
 -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 훈춘(琿春)이 북중 경제협력의 신흥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최근 취업비자를 내준 북한 근로자 100여명이 시범적으로 훈춘 인근의 투먼(圖們)에 있는 중국 기업에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측은 시범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인력 공급 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으로 알려짐.
 - 중국 매체인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는 16일 훈춘과 단동을 중심으로 한 북중 경협 현황을 비교하면서 “훈춘의 급부상이 단동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신문은 훈춘의 철도, 고속도로 등 물류망이 빠르게 개선되는 점에 주목하면서 단동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변경 무역상들이 최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함.
- **ITU, 北에 전파교란 조사협조 요청(6/16,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지난 4~5월 한국에서 발생한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전파교란 사건의 진원지를 파악하는 조사와 관련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함.
 - 산자이 아차리아 ITU 선임공보관은 이날 “북한 정부에 한국 영토에 있는 항공기, 선박들의 운항을 방해한 (교란) 전파에 대해 주의를 줬다”며 “한국 기지국들이 겪은 전파 교란의 근원지를 찾아내는 데 긴급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힘.
- **北외무성, 힐러리 장관 실명 비난(6/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7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힐러리는 미국의 경제난과 실업대군 구제에 신경 쓰는 것이 주제에 어울릴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요

즘 미국 당국자들이 말끝마다 우리의 인권문제, 민생문제를 운운하는데 그 대표적인물이 바로 힐러리”라며 “공화국을 장기적으로 적대시하고 위협해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을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놓은 미국이 이제 와서 우리보고 민생을 첫 자리에 놓으라고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가증스러운 위선”이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미국이 말로는 우리에게 대해 적의가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는 계속 적대시하는 한 우리의 핵 억제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의 군수공업도 이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면서도 핵 억제력을 자체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와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함.

기타 (대외 일반)

- 北 노동당 대표단(김영일' 黨비서)과 베트남 공산당 대표단(황 빙 꾸언' 黨 대외부장) 사이 회담, 6.11 하노이에서 진행(6.12,중통)
- 美-러의 '美-NATO 유럽 MD체계 창설문제' 관련 “정치군사적 대립격화” 예상 전언(6.15,중방/유럽미사일방위체계를 둘러싼 러-미 사이의 대립)
-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6.17), 힐러리 美 국무장관의 對北발언(민생문제 우선) 관련 실명거론 비난하며 ‘행동을 계속 적대시 하는 한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될 것’ 이라고 위협(6.17,중통)
- 北 노동당 대표단(김영일' 黨비서)과 미얀마연맹연대성발전당 대표단(우테인' 조직담당비서) 사이 회담, 6.14 진행 및 연회 참석(6.17,중통)

3 대남

- 파주시, 6~9월 개성공단 말라리아 특별 방역(6/11, 연합뉴스)
 - 개성공단 지역에 말라리아 예방 특별 방역이 실시된다고 11일 연합뉴스가 전함.
 - 경기도 파주시는 6~9월 매월 1회 모두 4차레에 걸쳐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특별 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임.
 - 방역은 14~15일이며, 파주 방역반 7명과 차량 2대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임.

- 北 “南보수언론 비명 터질 날 멀지않아”(6/11, 평양방송)
 - 북한이 11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사를 겨냥해 “비명이 터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평양방송이 전함.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이날 “우리 혁명적 무장력은 새로운 악행을 연출하고 있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물론 KBS·CBS·MBC·SBS 방송국 자리표도 확정해 놓고 불마당질할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우리는 남조선 보수언론들이 이명박 X새끼 무리와 동조해 나선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엄숙히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보수언론들이 이명박 X새끼와 한 짝이 돼 어린이들의 경축행사에 대해 시비하다 못해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또다시 중상모독했다”고 주장함.

- 北 “정몽준·김문수 친북언행 공개할수도”(종합)(6/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정몽준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 등 새누리당 대권주자들의 친북·중북 언행을 공개할 수 있다며 “정몽준, 김문수 등이 우리에게 와서 한 말들을 모두 공개하면 온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날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공개질문장을 통해 “최근 남조선에서는 보수패당에 의해 전례 없는 중북세력 척결 대광란극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패당은 통합진

보당 사태 등을 계기로 저들의 반통일대결 책동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모조리 종북좌파 감투를 씌워 매장하려 한다”고 전함.

● 北 “南측 간첩사건은 자작극·대북도발”(6/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최근 남조선의 간첩소동은 이명박 패당의 날조극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국면전환을 노린 유치한 자작극’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그 무슨 여자간첩사건이니 비전향장기수 출신 간첩사건이니 하는 것은 모략과 날조에 이골이 난 역적패당에 의해 계획되고 연출된 서푼 짜리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극도의 통치위기에 빠질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들을 꾸며내 여론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은 괴뢰 통치배들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보수패당은 이번 간첩사건들을 새로운 공안정국을 조성해 종북세력 척결소동에 명분을 세우고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탄압공세를 강화하는 데 써 먹으려 한다”고 비난함.

● 北, 6·15선언 12주년 맞아 대남 맹비난(6/14,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들은 6·15공동선언 12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자주통일의 대강’이라며 “공동선언을 거부한 이명박 정권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14일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6·15 북남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원칙과 방안, 구체적 방도를 뚜렷이 밝혀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새 세기 자주통일의 대강”이라고 강조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6·15통일시대가 열린 것은 김정일 동지의 비범한 영도력과 넓은 포용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며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진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북남선언들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자주통일도 민족번영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했다”고 주장함.

- 통신은 “남조선 이명박 역적패당은 집권 초기부터 6·15 북남공동선언을 거부하고 체계적으로 반공화국 책동과 노골적인 비난을 일삼아왔다”며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고 미국과 공모해 조선반도를 세계 최대의 전쟁 위험지역으로 만든 이명박 패당은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난함.

● 北 “南 대선개입 주장은 황당한 궤변”(6/14,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4일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그 무슨 (북한의) 선거개입설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를 걸고 종북세력 척결 소동을 극대화해 재집권 야망을 어떻게든지 이루어보려는 데 있다”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는 남조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으며 남조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든 그것은 남조선 민심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우리가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종북세력 척결 소동을 문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와 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이어 “공화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어 저들의 동족대결정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종북세력 척결 소동에 비낀 보수세력의 흥심”이라며 “제반 사실은 ‘종북세력척결론’이야말로 뒤집어놓은 동족대결론이고 전쟁론임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강조함.

● 6·15선언 12주년…北 “민족공동 통일강령”(6/15,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란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이라며 “그에게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변영을 위한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려는 숭고한 뜻이 있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 사설은 또 “자주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있고 선군의 믿음직한 보호가 있으며 우리민족끼리 이념으로 뭉친 겨레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조국통일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6·15공동선언에 대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7·4공동성명 등 지난 시기 북남합의들의 사상과 원칙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21세기 조국통일의 기치”라고 평가함.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에란 제목으로 12년 전인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6·15선언 탄생 비화를 소개하기도 함.

● 北 “중북 논하기 전에 북남관계 입장 밝혀라”(6/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5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중북을 논하기 전에 동족관, 우리와 북남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보수패당은 제 족속들의 북(北) 방문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우겨대지만 그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그때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공동선언도 지지하며 자기들과 하면 무슨 일이든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빌붙고서는 지금에 와서 시치미를 떼고 중북소동까지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철면피성과 저열성, 추악성을 그대로 드러낼 따름”이라고 비난함.

기타 (대남)

-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헐뜯고 ‘친미사대, 동족대결로 온 겨레에게 불행한 가져온 역적패당의 죄행은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동(6.12,중통/6.15공동선언을 말아먹은 역적 무리의 죄행)
- 6.15공동선언 남측위 서울본부 등 31개 단체들, 6.7 청와대 앞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진행(6.12,중통)
- 北 『조평통』 서기국, 6.15 남측의 ‘중북’ 논란은 ‘남북문제’라고 시비 및 새누리당과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등 입장 표명’ 재차 주장 ‘보도 제1001호’ 발표(6.15,중통·중·평방)
- ‘6.15공동선언’ 발표 12주년 관련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6.15통일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자”고 선동(6.15,중통·중방·노동신문/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 韓美(연합해상훈련) 및 국군(포항 특정경비지역사령부 2012 화랑훈련·연합해상훈련·대규모 기동훈련) 훈련 계획·실시 등 인용비난(6.15,중통·중방)

- 李 대통령,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의 ‘北 개혁 개방’ 발언 관련 “체제통일 기도의 뚜렷한 발로”라며 ‘역도의 개혁, 개방이라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공상’이라고 비난(6.16, 중통·노동신문·평방/속에 칼을 품은 자의 희떠운 노죽)
- 李 대통령, 美 국회 하원의원단 접견시 北인권문제 거론 관련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반통일 대결정책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속심’이라고 비난(6.16, 중통·노동신문·중방/인권 제창자들이 빚어낸 참혹한 현실)
- 中북세력문제 관련 ‘대선을 앞두고 中북세력 척결소동을 벌이는 것은 통합진보당 말살, 야권연대 파괴를 통한 재집권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지속 비난하며 反정권투쟁 선동(6.16, 평방/쓸어버려야 할 대상)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6.18-6.24

6월

4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조총련, 김정은 우상화 교육..“총련단결” 강조(6/18, 연합뉴스)**
 -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최근 조직 간부들을 상대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허종만 (조총련) 의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8일 연합뉴스가 전함.
 - 17일 일본 내 북한 민주화 운동 단체인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에 따르면 조총련은 지난달 28일부터 오사카에서 동일본과 서일본 지부 위원장, 조선학교 교장 등을 상대로 2박3일씩 ‘단기강습’을 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이달 21일까지 계속할 예정임.
 - A4 용지 25장 분량의 이 자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10대의 나이에 주체사상의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고찰하고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다’거나 ‘최첨단 과학기술 전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새벽 4시, 5시까지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주체적인 군사 전법을 체득한 뒤 우리 식의 작전구상을 완성해 대학 강좌장의 탄복을 자아냈다’는 등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음.

- **北, 김일성훈장 초상화 ‘태양상’으로 바꿔(6/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일 김일성훈장, 김일성상 금메달, 김일성청년영예상 메달, 김일성소년영예상 휘장 등에 새겨진 기존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를 ‘태양상(김 주석 영정사진)’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태양상’은 김 주석의 영결식(1994년 7월19일)에 맞춰 만수대창작사 김성민 화백이 창작한 김 주석 영정사진으로, 김 주석이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형상한 것임.
 -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은 김 주석의 60회 생일을 맞아 1972년 3월20일 제정되었으며 김일성청년영예상은 같은 해 1월8일, 김일성소년영예상은 같은 해 3월9일 각각 제정됨.

김정은동향

- 6/22,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경상유치원·경상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칠색송어 선물(6.22,중방)
- 6/24, 김정은 제1위원장, 창전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6.24,중방)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黨사업 개시 48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6.18 김영남·최영림·최룡해·리영호·김기남(보고)·문경덕(사회) 등 참가 4.25문화회관에서 개최(6.18,중방·평방·중통)
- 최영림 내각 총리, 칠골남새전문농장(평양 만경대구역)과 룡천협동농장(黃北 황주군) 로해 및 평양산원 유선센터건설장 시찰(6.18,중통·중방)
- 김영남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6.22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 참관(6.22,중통·중방)

나. 사회·문화

● 北 “평양서 고구려시기 유적 발굴”(6/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평양시에서 고구려 시기의 성벽과 벽화무덤 등의 유적을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함.
- 통신은 “평천구역 안산동과 정평동 일대에서는 평양성 외성에 대한 부문 발굴이 진행돼 이 성이 잘 다듬은 돌로 정연하게 축조된 돌 성벽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성벽 기초축조 형식이 독특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기와도 발굴됐다”고 소개함.
- 통신은 “만경대구역 선내동 일대에서는 적두산성에 대한 발굴과 실측을 진행하는 과정에 성벽 축조방법이 평양성의 축조방법과 같으며 성이 평양성의 서쪽 방어성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덧붙임.

● 美친교농구단 첫 방북...5일간 체류(6/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아시아에서 주로 활동한 선수로 구성된 미국 친교농구단이 16일부터 5일간 북한을 방문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스위스 유학 시절 미국 프로농구에 매료된 것으로 알려짐.
-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미국 선수단은 주로 중국이나 한국 등 아시아에서 활약한 선수들로 구성되었으며 루크 엘리 농구단 대표는 농구단이 평양에

서 북한의 대학이나 직업 농구선수단과 경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선수단은 또 북한에서 평양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농구교실을 열 계획임.

● **北, 옛 소련 시절 對러 채무 문제 타결(6/19, 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이 이달 초 옛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 (약 12조원) 상당의 채무 조정 및 상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러-북 관계에 정통한 모스크바 소식통은 19일(현지시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채무 문제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이 북한 측과 채무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1일 관련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채무 문제는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양측이 좀 더 적극적인 협력 관계 발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 **난민지위 취득 탈북자 전세계 1052명(6/20, 미국의소리(VOA))**

- 세계 각지에서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자가 지난해 말 현재 1천52명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통계를 인용해 20일 보도함.
- 국가별 분포를 보면 영국 603명, 독일 193명, 캐나다 64명, 네덜란드 36명, 벨기에 31명, 호주 29명, 미국 25명 등이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통계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각지에서 사실상 난민으로 생활하는 탈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됨.
- UNHCR는 또 난민 지위를 받으려고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가 작년 말 현재 490명이라고 밝혔으며 난민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를 합하면 모두 1천542명으로 전년보다 347명이 늘어남.

● **농촌경제연구 “北가뭄 계속 땀 7~8월 식량난 심각”(6/20, 연합뉴스)**

- 북한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식량지원을 하지 않으면 7~8월에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북한의 가뭄 실태와 식량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해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 특히 곡창지대인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4월 말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강수량이 평년의 10%에 불과하며 6월 말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수리시설이 부족하고 밭농사 비중이 높은 북한 농사에 심대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 **北, 일반 주민에도 금강산 관광 허용(6/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남한 관광객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북한 일반 주민에게 금강산 관광을 단계적으로 허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주민의 말을 인용해 21일 보도함.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함경남도 주민 민모씨는 RFA에 “요즘 당국에서 각 기업소, 단위별로 금강산관광단을 조직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다”며 “지난해 가을부터 금강산 관광이 일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관광단이) 많이 조직된 것은 올봄 이후”라고 전함.
- 민씨는 “함경남도 기업소의 경우 보통 2박3일 일정에 1인당 관광요금은 미화로 30~50달러 정도”라며 “교통수단은 기업소 소속의 대형버스를 이용한다”고 설명했고 “금강산 관광을 가는 사람들은 주로 기업소 간부나 지방 간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일반인들이며 특별한 자격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관광단을 꾸리는 데 인원이 모자라 돈만 내면 아무나 갈 수 있게 하는 것 같다”고 말함.

● **평양 창전거리는 21세기 北 첫 ‘뉴타운’(6/22,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1일 “작년 5월22일 착공 이래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나의 새로운 거리가 평양시 중심부에 일떠서게 됐다”고 전함.
- 평양의 중심부에 창전거리가 완공됨으로써 북한 당국이 올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야심차게 준비한 대규모 ‘뉴타운 건설 구상’이 실현됨.

- 조선신보는 “창전거리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있는 만수대언덕 주변의 일각에 꾸러졌다. 만수대지구의 면모를 일신하는 건설사업은 평양시내 대규모 건설의 중심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온 것”이라고 소개함.

● 北, 원산 바닷가에도 놀이공원 건설(6/2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강원도 원산시의 바닷가에 놀이공원을 새로 건설 중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전함.
- 방송은 “원산시의 풍치 수려한 해변에 유희장이 새로 건설된다”며 “유희장에는 우주비행선, 2중회전반, 회전그네, 함마(해머)치기 등 현대적인 유희시설이 갖추어지게 된다”고 소개함.
- 놀이공원에는 전자오락장, 수영장, 청량음료점도 들어서게 된다고 방송은 전했고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강원도의 일꾼과 근로자들은 유희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섰다”며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가뭄으로 식량난 재연 가능성(6/23, 연합뉴스)

- 북한에 가뭄이 계속돼 또 다시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원조단체 관계자가 22일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비정부단체 벨트홍거힐페 책임자로 약 1주일간 북한을 돌아보고 중국에 도착한 볼프강 야만은 중국외신기자클럽에서 북한 방문 기간에 남쪽 2개 도에서 아이들이 병이나 양동이에 물을 담아 농작물에 물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전함.
- 그는 “지난 60년 래 최악의 가뭄이라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다”면서 “북한이 주요 작물인 벼와 양배추,옥수수를 심는 철이지만 가뭄으로 농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함.

● 北 해외근로자 월급 본인 몫 10~20% 불과(6/24, 아사히신문)

- “북한이 체코 합작 봉제공장에 파견한 근로자는 월 150달러를 받지만 자신이 손에 쥐는 돈은 30달러 안팎에 불과하다”고 아사히신문은 24일 외화별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임금 착취 실태를 특집으로 보도함.

- 신문은 북한의 전 경공업부 책임지도원으로 2000년부터 3년간 체코에 있는 북한-체코 합작 봉제공장을 경영한 김태산(60) 씨가 “북한 근로자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받는 월급의 10%도 안 된다”고 증언했다고 전함.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北 기상수문국, 6.15~16 서해안 여러 지방들에 비 소식 보도를 통해 여전히 가뭄현상 심각 주장 (6.19,중통)
- 北,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협조하에 ‘토지 퇴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전개(6.20,중통)

2 대외

- 北 “美 잇단 침략전쟁준비책동…정전협정 위반”(6/1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18일 “우리는 계단식으로 확대되는 미국의 침략전쟁 준비책동을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의 대북 관련 발언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힘.
 - 대변인은 “미국은 입만 벌리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떠들지만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적대시하고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로 긴장 격화를 산생시키는 장본인”이라며 “미국의 속심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우리의 총진군에 장애를 조성하고 남조선을 저들의 침략전쟁정책의 하수인으로 철저히 예속시키자는 데 있다”고 주장함.

- 北 조국전선 “대북제재는 침략·약탈 수단”(6/21, 평양방송)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20일 미국과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비망록을 발표했다고 평양방송이 21일 전함.
 - 조국전선은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추종세력의 제재책동 진상과 악랄성, 비열성을 만천하에 발가놓고 규탄하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약탈, 지배와 간섭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함.
 - 비망록은 “미국은 조선반도 주변에서 침략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훈련을 강행하면서 여기에 남조선 괴뢰와 일본까지 끌어들여 우리에게 대한 봉쇄망을 확대하려 한다”며 미국을 비난함.
 - 이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책동에 가담해 가장 악질적으로 날뛰는 것은 이명박 역적패당”이라며 “이명박 패당은 집권하자마자 미국의 제재책동에 적극추종해 돈줄이니 군사전용이니 뭐니 하면서 북남교류를 차단해 버렸다”고 비난함.

● 美상원, ‘對北 식량지원 금지’ 법제화(종합)(6/21, 연합뉴스)

- 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Farm Bill) 개정안을 지난 20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른 기금의 대(對) 북한 식량 지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다만, 행정부가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웨이버·waiver)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미국 상원의 ‘거물급 인사’로 20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저(공화·인디애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가결됨.

● 中, 유엔 대북 제재결의 위반 21건 관여(6/22, 아사히신문)

-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對)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무기와 사치품 등의 수출입에 대거 관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결의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북한과의 무기 또는 사치품 거래를 38건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건에 중국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함.
- 중국이 관여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은 ▲북한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 수출입 2건 ▲일반 무기 수출입 6건 ▲북한의 사치품 수입 13건 등임.
- 북한은 무기 및 사치품 수출입 시 중국의 항만을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중국 기업의 중개를 거친 사례가 대부분이며 특히 11건의 경우 중국 동북부의 항만 도시인 다롄(大連)이 무대가 됨.

● 中, 압록강변 北지역서 첫 재난훈련(6/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이 최근 북한과 접경지역인 압록강변 북한 지역에서 홍수 대비 긴급 재난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매체를 인용해 23일 전함.

- 중국 관영매체인 중신사(中新社)는 단둥발로 중국 당국이 지난 15일 북 중 접경의 신압록강대교 건설 현장에서 홍수 대비 비상훈련을 실시했다며 랴오닝성과 단둥시의 건설·교통·안전 부서와 신압록강대교 건설본부 등에서 모두 110명의 인원이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으며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훈련은 위험 경보, 응급 처치, 인원 철수, 사후 수습 등 네 단계로 나눠 1시간 동안 진행됨.

● 北, 日 언론에 일본인 묘지 공개(6/23, 교도통신)

- 23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북한이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을 초청해 태평양 전쟁 말기 북한에 있다가 사망한 일본인의 묘지를 공개했는데 평양 근교에 있는 일본인 묘지 2개소와 유골 등이었음.
- 북한은 이들 묘지와 유골이 2차 세계대전 말기 북한에 남아있다가 숨진 일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함.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변인, 6.18 미국의 '反北 무력증강책동'(駐韓美軍 공격용헬기 추가배치 언급·韓美日 합동군사연습 발표·韓美2+2회담)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자위적국방력 백방강화" 공언 중
통 기자 대담(6.18, 중통·중방·평방)
- 北 외무성 대변인, 6.24 韓·美軍의 합동실탄사격연습時(6.22) '인공기를 과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미국의 反北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으로 "자위적 핵억제력 더욱 강화" 공언 담화 발표(6.25, 중통·중방)
- 6.25전쟁'은 "미국의 식민지 약탈정책이 가져온 만고죄악"이라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무력증강·군사훈련 등 미국의 '北 남침위협' 대비 對한반도 군사정책 비난(6.24, 중통·제2의 6.25전쟁을 몰아오는 미제)

3 대남

● 北 “남측에 금강산 관광길 이미 열어줬다”(6/18, 우리민족끼리)

-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우리는 지난해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하고 금강산에 부동산을 두고 있는 남측기업가들이 새로운 관광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남측 기업인들도 우리가 취한 조치에 공감을 표시하며 금강산 국제관광에 참가하고 싶은 의향을 표시했었다”며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남측 관광객 없이 관광재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느니 뭐니 하는 심술궂은 소리만 하면서 금강산 관광재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비난함.
- 이 매체는 최근 강원 고성군을 찾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남조선당국이 금강산 관광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하며 운운하는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현정은)의 평양방문 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 준 문제”라고 주장함.

● 北경비정 동해 NLL인접 해역으로 남하..한때 긴장(6/19, 연합뉴스)

- 북한 경비정 한 척이 1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쪽으로 남하해 해상에 경계 강화 조치가 내려지는 등 한때 긴장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0분께 북한 소형 경비정 한 척이 평소 활동 반경보다 넓은 NLL 인접 해역까지 남하하였으며 영동 북부 해상에는 어선들의 출어가 제한되고 조업중인 어선에도 철수지시가 내려졌음.
- 이후 남하했던 북한 경비정이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해상에 내려졌던 경계강화 조치는 오전 6시40분께 해제됨.

● 北 ‘6·25 북침설’ 거듭 주장(6/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자료를 통해 본 조선전쟁 도발자의 정체’란 글에서 “지난 조선전쟁은 미제가 2차 세계대전 후 세계제패를 위한 첫걸음으로 도발한 범죄적인 대량살육전쟁이었다”며 일부 ‘자료’를 증거로 제시함.
- 통신은 일본도서 ‘미국은 패했다’란 제목의 도서를 인용해 1949년 10월 육군사령부에서 열린 사단장회의에서 한국 주둔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트가 “앞으로 38도선 이북지역에 대한 한국군의 진공은 오직 미 군사사

절단의 명령에 의해서만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함.

- 통신은 “전 국군 17연대 참모장교 한수한이 ‘1950년 6월24일이 토요일이었음에도 장교들은 외출이 금지되고 전쟁명령을 기다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24일 밤에 25일 새벽을 기하여 38도선을 돌파, 북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개시할 데 대한 비밀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고도 주장함.

기타 (대남)

- 李대통령의 對北발언(폐쇄된 사회, 내부사정 등)을 ‘대내외정책의 총파산과 특대형 부정부패사건으로 민심을 잃은 산송장의 허장성세에 불과하다’고 비난 지속(6.23,중통·민주조선/이○○역도의 반공화국 망발을 규탄)
- 南 인민들은 짓밟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중복세력이 아니라 중미를 연명으로 삼는 李○○역도와 새누리당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고 선동(6.23,평방/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는 중미세력)

6.25-6.30

6월

5주차

1. 대내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3. 대남

1 대내

가. 정치

● 北, 6·25 62주년에도 목청높여 ‘선군(先軍)’(6/25,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선군의 기치 높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란 사설을 통해 “오늘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62년이 되는 날”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두리(주변)에 하나로 굳게 뭉쳐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60년 가까이 되지만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전쟁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며 “선군정치는 제국주의 반동들과의 대결전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백승의 무기다. 수령님과 장군님(김정일)의 유훈대로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실현하는 길도 선군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데 있다”고 강조함.

● ‘장군님 초상화’에 목숨 바친 北학생 영웅화(6/26,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3일 함경남도 신흥군 인풍중학교 4학년 학생인 한현경을 ‘수령결사옹위투사’로 키운 부모와 학교청년동맹일군, 교원들을 표창함.
- 그의 어머니와 교장은 국기훈장 제1급을, 아버지와 부교장은 노력훈장을 각각 받았고 담임교원은 공훈교원칭호를 얻었으며 이 학교의 청년동맹·소년단책임지도원과 소년단지도원에게도 국기훈장 제2급과 제3급이 수여됨.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폭우 속에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초상화를 구하다 숨진 한현경 학생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을 수여하는 정령을 지난 18일 발표했는데, 한현경 학생의 수상 이유에 대해 “11일 새벽 무더기비(폭우)에 의한 사태로 집이 무너질 위험한 순간에 백두산 3대장군의 초상화를 목숨 바쳐 보위함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시대 청년동맹원의 빛나는 삶과 깨끗한 정신을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전함.

● 北 문화상 홍광순으로 교체(6/27,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이 문화상을 안동춘에서 홍광순으로 교체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홍 문화상이 기고한 ‘백두산 대국의 진군 북 높이 올리며’라는 제목의 글을 직함과 함께 실었으며 신임 홍 문화상은 군 소속인 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영화감독과 소장을 지냈고 국가 영화위원장을 역임한 영화제작 전문가임.

● 北 포털사이트 정치코너에 ‘김정은’ 누락(6/28, 연합뉴스)

- 북한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내나라’의 일부 코너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직 최고지도자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연합뉴스가 ‘내나라’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북한의 정치를 소개한 ‘조선의 정치’에서 ‘국가영도자’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만 소개돼 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음.

■ 김정은동향

- 6/25, 김정은 제1위원장, 6.25 인민극장에 버스·승용차·사다리차·도로청소용 물차 등 각종 운수기재들 전달(6.25,중통·중방·평방)
- 권혁봉 黨중앙위 부부장 등 참가下 전달모임 진행 및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 6/27, 김정은 제1위원장, 중요대상 건설 지원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6.27,중방)
- 6/28, 김정은 제1위원장,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 어린이들에게 친필 전달(6.28,중통)
- 6/29, 김정은, 만수대언덕에 김 아버지 동상 건립에 기여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6.29,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내각총리, 함경북도 금속부문사업(김책제철·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등) 현지요해(6.26,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북부지구 탄광·광산들 생산실태 현지에서 요해(6.28,중통·평방)

나. 경제

- **中, 투먼~청진항 물류운송 전용열차 운행(6/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이 북-중 국경지역에 있는 투먼(圖們)과 북한 청진항 간 화물운송을 위한 전용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 주정부는 동북지역의 석탄 등을 청진항을 통해 상하이(上海) 등 남동부 지역과 인근 국가로 운송하는 것이 최적의 물류 방안이라며 투먼에서 북한의 남양, 청진항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화물운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지만 다만 구체적인 열차 개통 시점은 언급하지 않음.

- **北 ‘첨단기술 산물’ 주체철은 실패작(6/27, 좋은벗들)**
 - 북한이 첨단기술의 산물로 선전해온 ‘주체철’이 제품공급 부족으로 내부에서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새좋은벗들이 27일 전함.
 - ‘주체철’은 용광로에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철광석, 석회석 등과 같이 넣고 고순도의 산소를 불어넣어 생산한 철로, 북한은 “주체철 생산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 인민경제 발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공언해옴.
 - 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61호)에 따르면 북한 중앙당의 한 간부는 “(기대와 달리) 절반도 생산이 안 되고 있다”며 “중앙에서도 좌시할 수가 없어 책임을 물어 술한 기술자들을 붙잡아갔다”고 전함.
 - 또 다른 당간부는 “작년에 실험에 성공은 했지만 작은 노(爐)에서 이뤄진 것이다. 실제 크기의 노에서 해보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한다”며 “(철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평양 10만 가구) 살림집 건설 완공 시기도 무한정 늦어지고 있다”고 말함.

- **北中, 평양에 합영 인쇄공장 설립(6/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국문출판사와 중국 동방영리상강국제투자유한공사, 장쑤중채인 무유한공사가 평양시 서성구역에 동백인쇄합영공장을 설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힘.

- 지난 25일부터 조업에 들어간 이 공장은 위조방지인쇄, 비닐인쇄, 철판인쇄 등의 공정을 통해 각종 인쇄물과 상표들을 생산해 판매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함.

다. 사회·문화

● 북한,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6/25,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 일대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함.
- 2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http://whc.unesco.org>)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역사유적지구’(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를 세계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했는데 이런 사실은 세계유산센터가 이날 개막해 다음달 6일까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하는 제36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접수결과를 보고하면서 공개됨.

● 최근 강제북송된 탈북자 4명 공개처형(6/25, 연합뉴스)

- 탈북자 출신인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25일 “북한에서 들려 온 소식에 의하면 최근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북송된 탈북자 44명 중 4명은 처형당하고 나머지는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고 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대표는 이날 인터뷰 전문 인터넷신문인 디인터뷰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관한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제3차 세미나’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북한당국의 그릇된 인권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 北서해안 지방에 고온현상 잦아(6/26, 조선중앙통신)

-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 서해안 지방에 고온현상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낮 최고기온이 지난 5월 하순경부터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보다 3~8도, 6월 중순부터는 7도나 높았다”며 이같이 전함.

- **‘개봉행사 취소’ 北中합작영화 평양서 시사회(6/27,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합작한 예술영화 ‘평양에서의 약속(平壤之約·원제 아리랑)’의 시사회가 27일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시사회에는 북한 측에서 박춘남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과 성기관 일꾼들,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 기자들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통강 국가광과전영전시총국 영화국장 등 영화대표단 관계자들과 류홍차이 주북대사 등이 참석함.
 - ‘평양에서의 약속’은 중국인 여성 무용수가 북한을 여행하며 북한 무용수들과 우정을 쌓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4일 폐막한 상하이 국제영화제에 출품돼 영화채널매체대상 부문에서 본선에 올랐고 지난 4월 베이징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됨.

- **北 “남포서 소금생산유적 첫 발견”(6/28, 조선신보)**
 - 북한에서 신석기나 청동기시대, 고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금생산 유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8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연구사들이 남포시 온천군 원읍구에 있는 논밭에서 동서 1km, 남북 2km에 달하는 소금생산 유적을 발견했다고 전했으며 유적에는 소금을 생산하던 시설로 추정되는 직경 20m, 50m, 80m 규모의 원형 돌 50여 개가 분포하고 있고 깊이 1~1.3m의 둑에서는 숯층, 진흙층, 숯과 조개가 섞인 층, 감탕층(진흙층) 등이 발견됨.
 - 다섯 개의 돌을 원모양으로 쌓아놓은 곳에는 숯·재가 가득 들어찬 시설이 있고 그 위에 가마를 놓은 흔적이 역력했다고 신문은 소개했으며 “이런 돌시설은 소금물을 잡아놓던 염정으로 추정된다”며 선조들의 전통적인 소금생산 방법이 해명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함.

- **北 올해도 ‘최악 중 최악’ 인권탄압국(6/29,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올해도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꼽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보고서는 북한이 40년 동안 극도로 인권을 탄압한 국가로 선정됐으며 약 20만명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설명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나선-금강산間 유람선 금강산국제관광(구룡연·만물상·삼일포·해금강), 6.29부터 시작(6.30,중통·중방)

2 대외

- **북중 접경 中단둥 부동산시장 ‘꿈틀’(6/25, 연합뉴스; 중국증권보)**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춤했던 북중 접경도시 단둥(丹東)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5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에 따르면 완다(萬達)집단이 지난 23일 랴오닝성 단둥에서 m²당 6천400위안(약 118만원)에 분양한 ‘완다광장’의 첫 공급분 주택이 당일 오전에 판매가 마감됨.
 - 신문은 최근 중국 다른 지역에서 상당수 개발업체가 부동산 물량 처리를 위해 가격 인하에 나선 것과 달리 완다집단은 이번에 가격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도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는데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단둥의 기존 주택 평균 가격도 m²당 5천200위안(약 96만원)에서 5천400위안(약 1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함.
- **中외교부, 황금평 개발 좌초설 정면 부인(6/26,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과 함께 개발 중인 황금평 경제구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됐다는 외신 보도를 정면 부인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황금평 프로젝트의 양대 경제구 항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최근 황금평 경제구 사업 보류 의사를 북한에 통보했다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답했으며 “관련 보도는 터무니없는 날조로 완전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함.
- **北 “일본 영토팽창책동 날로 노골화”(6/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8일 일본이 태평양에 있는 작은 암초인 ‘오키노토리(沖ノ鳥)’를 자국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영토팽창 야망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일본이 가는 곳마다 파렴치한 영토팽창 야망을 드러내놓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동아시아지역의 불안정과 긴장 격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대변인은 “오키노토리는 일본 영토로부터 수백 km나 떨어진 태평양 위에 위치한 한갓 바위에 불과한 것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제된 섬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자체의 경제수역을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함.

● **북·중 첫 종합박람회에 中업계 관심 고조(6/29, 연합뉴스)**

- 오는 10월 북·중 접경도시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에서 열리는 종합박람회인 ‘2012 북·중 경제무역문화여행박람회’에 대한 중국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고 29일 연합뉴스가 전함.
- 단둥 현지 매체인 압록강만보는 올해 단둥시 최대 행사인 박람회 개최를 3개월여 앞두고 중국 측 기업에 배정한 400개 전시부스 가운데 200여개가 이미 예약을 마쳤다고 29일 보도함.
- 박람회는 ‘우의·합작·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양국 상품 전시와 경제무역 상담, 공예품 전시, 문화예술 공연, 관광자원 전시·합작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임.

● **北 불법화물, 中다론편에서 최초 환적·경유(종합)(6/30,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어긴 북한의 불법 화물이 중국 다론편(大連)항에서 최초로 환적 또는 경유해 국제 운송망을 통해 이동한다는 내용이 안보리의 문서로 공식 채택됐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함.
-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안보리가 합의한 이 보고서를 29일(현지시간) 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위 보고서에 다론편항이 명시된 것은 처음임.
- 중국측의 양보는 안보리 결의가 계속 무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다론편항을 거치는 북한 화물은 다수의 중개인에 의해 문서가 세탁되기 때문에 북한측 발송자의 식별이 힘들다고 보고서는 설명함.

● 중국인 대상 금강산 뱃길관광 시작(6/30, 중국국제방송)

-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유람선 관광노선이 개통됐다고 중국의 국영 라디오방송인 중국국제방송이 30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100명이 지난 29일 오전 지린성 훈춘(琿春)시 권하통상구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뒤 나진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으로 떠났으며 지린성 주민이 대부분인 관광단은 4일간 나선시를 둘러보고 금강산의 사찰, 폭포 등 명소를 관광한 뒤 훈춘으로 돌아감.
- 방송은 “북한이 중국을 대상으로 처음 (정식) 유람선 관광노선을 선보였다”며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에 가는 이번 노선은 시작부터 많은 인기를 모았다”고 전했고 또 “이 노선은 상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여행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관광단을 금강산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한국전 관련 “조선전쟁은 힘의 만능론에 환장한 미제가 조선을 앞잡아보고 도발한 것”이라고 거듭 ‘북침설’로 왜곡하며 ‘미제가 힘의 정책을 계속 매여달리는 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주장(6.25, 중통·노동신문·평방/힘의 우세는 미제의 독점물이 아니다)
- 중국 농림수리공회 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개선문·우의탑 등 참관(6.27, 중통·평방)

3 대남

- **北,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사대매국행위” 비난(6/2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우리 정부가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의결한 것에 대해 “매국 행위”라며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으로 말하면 남조선괴뢰들이 일본과 그 무슨 ‘도발설’에 대해 쌍피리를 붙어대며 군사분야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교류한다는 구실로 추진해온 매국협정이며 반공화국 대결공조협정”이라고 주장함.
 - 이 매체는 “남조선 괴뢰들에게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의 압력”이라며 “미국에 잘만 보이면 민족의 운명과 민심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극악한 사대매국의식이 이런 희세의 정치날치기를 빚어낸 것”이라고 비난함.

- **개성공단 상수도관 보수공사에 30억 지원(6/28, 연합뉴스)**
 - 통일부는 28일 개성공단 용수공급 시설 보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도수터널(상수도관) 보수공사에 30억7천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함.

- **北 “남한에 끌려간 여성 귀환”(종합)(6/28, 조선중앙통신)**
 - 남한에서 생활하다 북한으로 귀환한 탈북자가 28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남조선으로 끌려갔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박정숙 여성이 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했다”며 해당 여성의 탈북경위와 귀환 소감 등을 전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살던 박정숙은 6·25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간 아버지를 찾으려고 2006년 3월29일 밤 탈북했다가 6년

만인 지난 5월25일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남한생활에 대해 “탈북자들에게 차례지는 일자리란 오물청소, 그릇닦기, 시중들기 등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일뿐이며 자살률은 여느 사람들의 5배에 달한다”며 “탈북자들은 남조선 사회를 저주하고 자신들을 원망하며 공화국(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탈북후 재입북 여성’ 박인숙씨로 확인(종합)(6/29, 연합뉴스)

- 탈북 후 남한에서 생활하다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박인숙씨(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밝힘.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입북한 인물은 2006년 입국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박인숙씨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함.

● 北 “미국산 무기구매는 무분별한 망동”(6/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한의 무기도입사업에 대해 30일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정세를 더욱 첨예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역적패당은 올해 미국과 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액수의 무기구매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것을 임기 말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며 “인민들의 혈세를 미국 상전에게 섬겨 바치고 부정축재해보려는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기타 (대남)

- 韓美日 연합해상훈련(6.21~22, 제주도) 등 실시 관련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새로운 도발이고 전쟁의 전주곡”이라며 ‘이○○패당이야말로 긴장격화와 평화파괴의 주범’이라고 비난(6.25,평방/북침을 노린 미-일-남조선 합동군사연습)
- 國軍의 ‘미군지원방호특수차량’(MRAP) 도입 관련 ‘北의 급변사태 발생시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 북침통로를 열 것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6.26,중통·민주조선/북침통로를 열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을 단죄)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5·6월

북한동향 일지

<5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5/1, 중·평방·중통	『5.1절』 122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에서 개최
5/2, 중통·중·평방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5.1절』 즈음 대관유리공장과 허철용 기계공장 현지 지도 및 노동계급들 축하
5/2, 중통	김영남·최영림을 비롯한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조선인민군 제26차 군사과학기술전람회장 참관
5/3, 중방	김정은 제1위원장, 4.27 김일성주석 생일 100돌을 맞아 여러 단위들에서 올린 편지에 친필
5/4, 중통·중방	김정은 제1위원장,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시찰 및 항공절(11.29) 지정
5/4, 중방	최영림(총리), 5.3 단천마그네사공장·단천제련소 현지 요해
5/5, 중방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평양학생소년궁전에 악기 선물
5/5, 중통·중방	최영림(내각 총리), 5.4 함흥시 경제사업 현지 요해
5/6, 중통	최영림, 5.5 금야강군민발전소와 금야청년탄광사업 현지요해
5/8, 중통	김정은 제1위원장, 저작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4.27) 발표
5/8, 중통·평방	김영남, 만수대의사당에서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친선대표단과 담화
5/9, 중통·중방	김정은 제1위원장, 최룡해(총정치국장)·마원춘(黨 부부장) 등과 함께 만경대유회장 시찰
5/9, 중통·중방	김정은 제1위원장,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국토관리총동원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5/10, 중통·중방	최영림 총리, 양책베아링공장 현지 요해
5/13, 중방	北 전반적 지방에서 이상고온(4.30~5.9 평양 27도, 평성 26.6도, 사리원 27.4도 등) 현상으로 '농업·인민경제 부문에서 피해대책' 강구
5/14, 중통·중방	제15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5.14~17),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
5/15,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요해
5/18,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5.17 평안북도 창성군 사업(창성식료공장, 삭주직물공장 등) 현지요해
5/20, 중통·중·평방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제639·53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5/20, 중통	최영림(내각총리), 평양남새과학연구소·평양화초연구소 온실건설실태 및 평양 민속공원 현지 요해
5/22, 중통·중방	최룡해(총정치국장), 만경대유회장 개건사업 현지 요해 및 5.21 완공을 앞둔 만수대지구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시찰
5/24, 중통·중방	김정은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 시찰
5/24,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마감단계에 이른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공사정형 현지요해

보도일자	내용
5/25, 중방·평방·중통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개성청년공원 유희장 시찰 요해 및 완공을 앞둔 창전거리·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건설사업 현지도
5/25, 중통	최영림 내각 총리, 5.25 황해남도 연안군·배천군(오현협동농장 등) 농사실태 현지 요해 및 5.24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시찰
5/26, 중방	최영림(내각총리), 신천군 새날농장·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농사실태 요해 및 황남청년제염소 방문
5/27, 중통	김정은 제1위원장, 5.26 중앙동물원 현지도
5/30,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순천화학연합기업소 현지요해
5/31, 중통	김정은 제1위원장, 창전거리에 새로 건설된 아동백화점·살림집·창전소학교·경상탁아소·경상유치원 현지도

〈6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6/1, 중통·중방	최영림 내각총리, 아동백화점 현지 요해
6/1, 중통·중방	6.1국제아동절 62돌기념 친선연환모임, 대성산유원지에서 진행
6/4, 중통·중방	조선소년단 대표들, 금수산태양궁전·대성산혁명열사능·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김일성종합대학·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 참관 및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과 교예배우들의 공연 관람
6/5,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상유치원에 보내는 선물 전달모임, 6.4 진행
6/6,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조선소년단' 창립 66돌(45.6.6) 경축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참석 및 '축하연설'
6/7, 중통·중방	김정은 제1위원장, 조선소년단창립 66돌 경축행사 대표들과 기념촬영
6/7, 중통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만수대의사당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출신 연방회의 의원일행과 담화
6/9, 중통·중방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새집들이를 한 희천2호발전소 종업원들(100가구)에게 컬러TV·살림도구 등 '선물' 전달
6/10, 중통·평방	최영림(총리), 개건중인 평양시 제1목욕탕을 돌아본 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 요해
6/12, 중통	최룡해 총정치국장,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 현지요해
6/14, 중방	김정은, 조선혁명박물관 건설에 모범을 보인 봉화지도국 노동자 등에 감사
6/15, 중통·중방	최영림 내각 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기술개건정형 현지 료해 및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시찰
6/17, 중방	김정은 제1위원장,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전달
6/18, 중방	김정은 제1위원장, 희천발전소 건설에 기여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
6/18, 중방·평방·중통	김정일 黨사업 개시 48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김영남·최영림·최룡해·리영호·김기남(보고)·문경덕(사회) 등 참가 4.25문화회관에서 개최
6/18, 중통·중방	최영림 내각 총리, 칠골남새전문농장(평양 만경대구역)과 룡천협동농장(黃北 황주군) 료해 및 평양산원 유선센터건설장 시찰
6/20, 중통·중방	평양 만수대지구 창전거리 준공식, 김영남(黨중앙위과 국방위 공동축하문 전달)·최영림(준공사)·최룡해·김정각·김기남 등 참가 下 진행
6/22, 중방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경상유치원·경상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칠색송어 선물
6/24, 중방	김정은 제1위원장, 창전거리 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6/25,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제1위원장, 인민극장에 버스·승용차·사다리차·도로청소용 물차 등 각종 운수기재들 전달
6/26, 중통	최영림 내각총리, 함경북도 금속부문사업(김책제철·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청진 제강소 등) 현지요해
6/26, 중통	'제4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 개막식, 김용진(내각부총리)·리성호(상업상) 등 참가 下 진행

보도일자	내용
6/27, 중방	김정은 제1위원장, 중요대상 건설 지원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
6/27, 중방	화력건설연합기업소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 6.26 김인식(내각부총리)·동정호(건설건재공업상)·홍인범(평남도당 책임비서) 등 참가하 진행
6/28, 중방	김정은 제1위원장,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 어린이들에게 친필 전달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